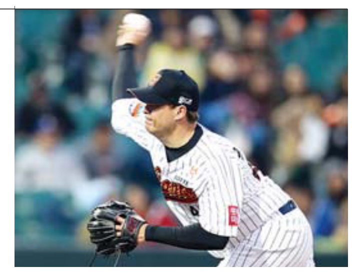
metro®
메트로 2014년 4월 11일 금요일 제2954호 www.metroseoul.co.kr

Entertainment p/18



막장드라마 편성 너무 많아

Sports p/21



프로야구 용병투수 의존 높아

대법 "흡연·암 인과관계 없다"

NEWS p/03

1분기 ICT수출 역대 최대

ECONOMY p/08



직장인 워런치족 부쩍 늘어

LIFE p/15



전 세계를 사로잡은 단 하나의 쇼!
볼쇼이 아이스 쇼
청소년 50% / 대학생 30% 할인!
2014년 4월 23일 개막 목동아이스링크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오픈리뷰 1588-5212 예스24 1544-6399
주최 MBC 주관/제작 ㈜공연타임스 협찬 한국줄기세포뱅크 LEXINGTON



류시원 日데뷔 10년 기념미팅

metro®
메트로 2014년 4월 11일 금요일 제2954호 www.metroseoul.co.kr



심기일전 류현진 내일 등판



기분 좋은 증시, 원화는 강세 행진 10일 오전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의 모습. 코스피지수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이날 오전 다시 2000선을 돌파했다. 전날 1998.95로 장을 마감한 코스피는 8.76포인트(0.44%) 오른 2007.71로 개장했다. 반면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양적완화(QE)와 초저금리 유지 기대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1030원대까지 떨어졌다. /연합뉴스

갤럭시S5 전세계 동시 '출격'

삼성전자 야심작 '올해의 슈퍼폰' 돌풍 관심

갤럭시S5가 11일 세계 무대에 출사표를 던진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신작 '갤럭시 S5'의 11일 전 세계 동시 출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통신사 영업정지 상태인 우리나라보다 세계 시장에서 거는 기대가 더 큰 상황이다. 삼성전자 실적 개선에 대한 업계 기대, 애플 아이폰에 맞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돌풍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1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갤럭시 S5와 기어2, 기어 피트는 11일부터 시차에 따라 뉴질랜드, 호주 등을 시작으로 150여 개국에서 순차 출시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제품 행사도 벌인다. 삼성전자는 브라질에서 갤럭시 신작을 활용한 패션쇼를 열었으며 일본 도쿄의 번화가 아키하바라와 유라쿠초에는 '갤럭시 숍'을 개설했다. 삼성전자는 11일을 공식 출시일로 지정해 이날 오후 8시 서울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에서 갤럭시S5 행사도 대대적으로 연다.

먼저 갤럭시S5가 세계 시장에서 승전보를 울릴지에 시선이 쏠린다.

지난달 27일 삼성전자는 영업정지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SK텔레콤과 손잡고 갤럭시S5를 예정일보다 국내에서만 2주 조기 출시했다. 업계 1위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직전에 갤럭시S5를 앞당겨 선보인 것이다. 갤럭시S5의 국내 하루 평균 판매량은 7000대 안팎이다. 영업정지를 감안하면 선방했다는게 업계 평이다. 하지만 지난해 출시된 갤럭시S4가 출시 직후 하루 판매고 1만~1만3000여 대를 기록한 것에 비해서는 저조하다.

갤럭시S5 출시 반응은 상대적으로 해외에서 더 뜨겁다.

미국 유명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8일(현지시간) 리뷰 기사를 통해 "쿼드코어 탑재임에도 오래가는 배터리, 뛰어난 사진 촬영 기능이 좋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갤럭시S5는 칵테일,변기통,딸기푸딩에 빠뜨려도 튼튼한 방수를 자랑한다"고 소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심장박동 측정은 갤럭시 기어 피트까지 있어야 더 효과적일 것" "지문인식 기능이 어렵고 번거롭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갤럭시S5 세계시장 출시에 대한 호조 전망을 두고 관련 업계는 들썩이고 있다. 이번 갤럭시S5 전 세계 출시는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2분기 실적에 직결타로 작용한다.

김지산 키움증권 전기·전자 연구위원은 "갤럭시S5 전 세계 출시에 따라 삼성전자와 관련 업체들의 2분기 실적이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환율 여건이 나쁘지 않은 편이며 신흥국 통화 안정세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승혁 한국투자증권 통신장비·가전 연구원은 "갤럭시S5 예약 판매를 기점으로 미국 이동 업체들의 마케팅 경쟁이 다시 격화 중"이라며 "해외 이동 업체들의 마케팅 경쟁은 글로벌 휴대전화 업체들에 고무적인 영향을 끼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면서 "갤럭시S5의 세계 무대 출시는 스마트폰 업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코스피 2000P 넘었다

코스피가 올해 처음으로 2000선 고지를 돌파했다. 외국인이 12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보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10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66포인트(0.48%) 오른 2008.61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부터 순조로운 2000선 움직임을 보이다가 장중 1990선으로 내려가며 보합권 등락을 거듭했다. 장 막판 상승폭을 크게 확대하며 2000선 후반까지 회복했다.

특히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의 글로벌 자금 이동 추세가 계속되며 지수를 떠받쳤다. 여기에 원화 강세 현상으로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 투자자의 유입도 더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은 2968억원어치를 사들였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1630억원, 1254억원 순매도했다.

대부분의 업종이 올랐다. 운수창고, 음식료, 섬유의복, 유통, 서비스, 의료정밀이 1% 이상 상승했고 의약품, 건설 등도 소폭 강세를 보였다. 반면 운수장비, 은행, 전기가스, 기계는 소폭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는 '현대차 3인방'이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로 약세를 나타냈다. 현대차는 전날보다 0.41% 내린 24만2500원을 기록했고, 기아차와 현대모비스가 각각 1.01%, 2.70% 내렸다. 반면 네이버는 미국에서 페이스북 주가가 급등했다는 소식에 힘을 받아 2.27% 올랐다.

이날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2.88포인트(0.52%) 상승한 555.10으로 장을 마감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2원 내린 1040.2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1030원선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새정치연합 '2번' 부활

6·4 지방선거 공천 결정…'공천' 53.44%vs'무공천' 46.56%

새정치민주연합이 6·4 지방선거에서 기초공천을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9일 전(全)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천 유지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10일 공식 발표했다.

이석현 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공천해야 한다'는 의견이 53.44%,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가 46.56%로 나왔다"고 밝혔다.

당원 투표의 경우 '공천해야 한다'는 견해가 57.14%로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42.86%)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50.25%로, '공천해야 한다'는 의견(49.75%)을 약간 앞섰다.

이에 따라 오는 6·4 지방선거의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기호 2번으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날 결정으로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당은 여론조사 2곳을 선정해 지난 1년간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36만여 명의 권리당원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중에서 무작위로 뽑은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기초공천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한·포르투갈 워킹홀리데이 MOU 체결 윤병세(왼쪽) 외교부 장관과 루이 마세트 포르투갈 외교부 장관이 9일 외교부에서 워킹홀리데이 체결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나서 협정서를 교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명장 받는 한은 총재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등 장관급 인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연합뉴스

개별소득세, 명품업체 배만 불려



기자 수첩

정 혜 인 <생활레저부 기자>

최근 외국계 명품 업체들이 잇따라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이미 관련 업계에서는 올해부터 적용된 세법개정안 때문에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해왔다.

출고가가 200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의 20%가 개별소득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명품 브랜드 제품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특이한 것은 해당 업체들이 세금 인상분이 반영되면서 가격이 인상되고 결국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보다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였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루이비통은 지난해 3월 일부 제품의 가격 인상에 이어 지난달 25일 또다시 가격을 인상했다. 페라가모 역시 지난달 인상 품목에 지난해 11월 가격을 올렸던 일부 제품들을 다시 포함시켰다. 프라다·생로랑·에르메스도 가격이 올랐다.

업계 관계자들은 외국계 명품 업체의 가격 인상에 단지 세금 인상분만이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국내 소비자들이 비싼 물건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도 괜찮을 거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추진한 개별소득세는 이들 명품 업체들의 배만 불려준 셈이 됐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해외직구·병행수입 활성화 방안도 명품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의문이다. 일부 명품 업체의 가격 올리기 꼼수를 차단할 근본적인 고민과 해결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당정,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 운영 합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10일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야당에서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시장 왜곡의 우려가 있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강 의원은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로 묶고, 그렇지 않은 곳은 푸는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용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위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주택 등록제, 표준임대차계약제 등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가격 안정화 대책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성 등의 문제로 정체된 뉴타운 사업을 대체해 도입한 도시재생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현정기자

"공과대학, 창조경제 전진기지 돼야"

공대 출신 박근혜 대통령 "미래 패러다임 변화"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공과대학이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창조경제는 결국 사람에게 달려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성공한 것은 주변에 위치한 우수한 공과대가 큰 힘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전자공학과 출신이다.

박 대통령은 "현재 대입 수험생 중에 이공계 진학 희망자는 과거보다 적고 창조경제 핵심인 소프트웨어학과는 정원 미달 사태를 빚고 있다"며 "공대 교육이 산업 현장과 괴리된 이론 중심으로 가면서 기업이 필요한 산업 인재를 양성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창조경제 패러다임에 맞게 공과대도 변해야 한다"며 "국내 100대 기업 최고경영자 중 이공계 출신이 20년 만에 상공·사회계를 앞질렀고 '이공계 프리미엄'이란 신조어도 나왔는데 정말 바람직한 변화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창조경제 시대에 맞게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히든 챔피언으로 커나가는 데 있어서 정부출연연이 조력자가 돼야 한다.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정부출연연이 중소·벤처기업의 연구소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jhj@

뉴스&뉴스

한·미 공군 11~25일 역대 최대 훈련

●한·미 공군은 11~25일 한반도 전 공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맥스선더' 훈련을 한다고 공군작전사령부가 10일 밝혔다.

맥스선더는 미국 공군의 '레드 플래그' 훈련을 벤치마킹해 한·미 양국 공군이 연 2회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공중종합훈련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103대의 항공기와 1400여 명의 병력이 참가한다.

추락 무인기 중간조사결과 오늘 발표

●국방부는 추락한 3대의 북한 무인항공기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11일 오후 2시30분 발표한다.

김민석 대변인은 "11일 오전에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분석 중인 소형 무인기 3대에 대한 기체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공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北 4차핵실험 하면 엄청난 대가 치를 것"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0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하면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장관은 이날 새누리당이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협력'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핵 불용과 추가 핵실험에 대한 결연한 반대 의지를 표시하는 등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핵 불용을 향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단합한 상황"이라면서 "한반도의 장래와 관련해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에 대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북한 지도부는 핵과 경제발전 병진 노선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공존과 고립의 갈림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역사 수정주의는 스스로 고립시킬 뿐 아니라 잘못된 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마저 불행하게 만든다"면서 "이제 일본 지도자들이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공개 약속을 성실히 지키면서 일관적이고 책임 있는 언행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추가 제재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흡연·암 인과관계 없다"

대법 '담배소송' 패소 판결…15년 재판 종지부

대법원이 흡연자들이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우다 암에 걸렸다며 제조회사에 배상을 요구한 국내 첫 '담배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했다.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제조사인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또 담배에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이 없다는 점도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김모씨 등 30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담배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만의 확정 판결이다.

재판부는 "흡연과 원고들에게 발병한 비소세포암, 세기관지 폐포세포암(모두 폐암)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특정 흡연자가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위와 같은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양자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폐암이 흡연이 아닌 환경오염물질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이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피고들이 담배의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은폐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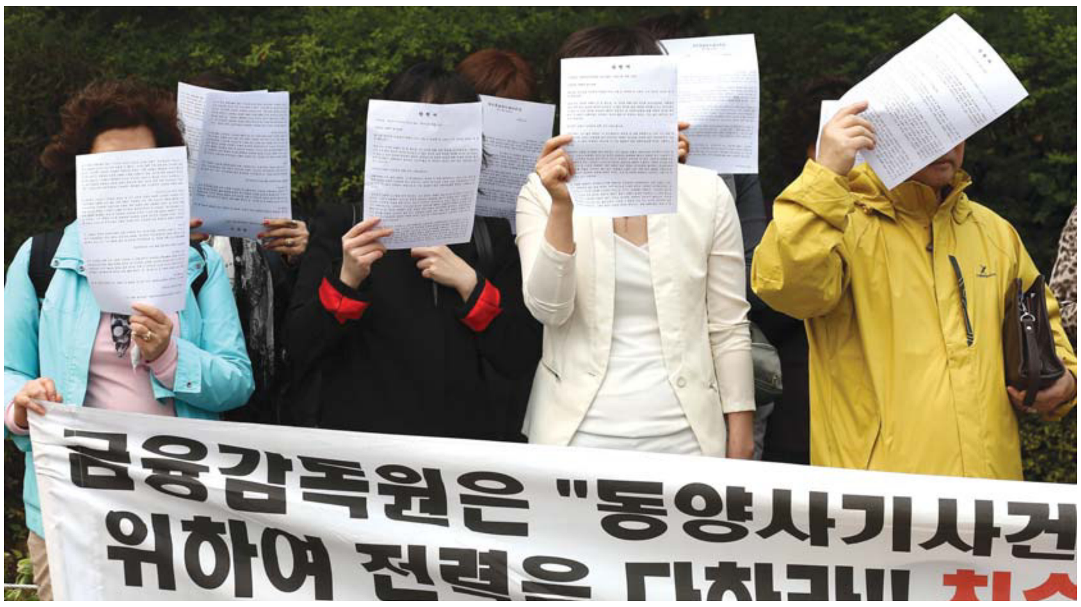
앞서 1, 2심에서도 "폐암과 후두암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원고들 중 폐암 환자 4명에 대해서는 "흡연과 암의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도 "KT&G의 담배에 결함이 존재하거나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위법 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 논란의 여지를 남긴 바 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4월은 장애인의 달 10일 오전 서울 덕수궁에서 청각장애 청소년들이 청각장애 문화유산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덕수궁을 둘러보고 있다.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는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아 16일에도 청각장애 청소년을 위한 '덕수궁과 정동 역사문화체험' 과정을 운영한다. /연합뉴스



얼굴 가린 동양 피해자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외 10인에 대한 속행 공판이 열린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관련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탄원서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7 수능 한국사 가장 쉬운 수준 출제

현재 고교 1학년부터 치르게 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 한국사 과목은 모든 문항이 현행 수능시험의 가장 쉬운 문항 수준으로 출제된다. 또 전체를 9등급으로 나눈 절대평가도 도입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런 내용의 2017학년도 수능 한국사 시험의 출제 방향과 10가지 문항 유형을 10일 공개했다.

학교 수업을 충실히 이수하면 사교육 없이도 대비가 가능하며, 다른 과목들과 동일하게 EBS 교재와의 연계 비율(현행 70%)을 지킬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시험은 고교 졸업자로서 갖춰야 할 역사적 지식과 역사적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10가지 문항 유형이 출제에 그대로 반영된다.

교육부가 제시한 문항 유형은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 알기 ▲역사에서 중요한 용어나 개념 이해하기 ▲역사적 사건의 흐름 파악하기 ▲역사적 상황 인식하기 ▲역사적 시대 상황 비교하기 ▲역사 탐구에 적합한 방법을 찾아 탐구 활동 수행하기 ▲역사 자료에 담긴 핵심 내용 분석하기 ▲자료 분석을 통해 역사적 사실 추론하기 ▲역사 자료를 토대로 개연성 있는 상황 상상하기 ▲역사 속에 나타난 주장이나 행위의 적절성 판단하기 등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시·도교육청별 역사 교사 연수 등을 통해 교사들이 새로운 수능 출제 방향에 맞춰 수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윤다혜기자 ydh@

롯데홈쇼핑 납품업체 추가 압수수색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회사와 납품업체 사이에 뒷돈이 오간 정황을 추가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롯데홈쇼핑 납품업체 1곳의 사무실 등지를 추가로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납품업체 7곳 사무실과 대표 자택 등 15곳을 압수수색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왔다.

검찰은 납품업체들로부터 방송 출연 횟수 등에 편의를 봐주고 각각 9억원, 2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모(47) 전 생활부문장과 전직 구매담당자(MD) 정모(44)씨를 지난달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리베이트가 전달된 경로를 추가로 확인함에 따라 뒷돈의 사용처를 추적한 뒤 롯데홈쇼핑 대표이사였던 신헌(60) 롯데백화점 사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윤다혜기자 ydh@

검, 의붓딸 항소심 '살인죄' 적용

'의붓딸 학대치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은 항소심에서 계모 임모(36)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사실상 세웠다.

검찰은 1심 선고공판이 11일로 다가와 공소장 변경이 불가능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상해치사 혐의 및 아동복지법 위반을 살인 혐의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변경키로 했다.

즉 항소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 등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상해치사 혐의 등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구속기소이후 계모 임씨에 대해 위증교사 및 강요 혐의를 추가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다혜기자

강서구, 침수 방지 터널 설치

서울시 강서구는 화곡동 지역의 침수 피해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하 40m에 지름 7.5m 규모로 연장 3.38㎞의 지하 터널을 대심도 방식으로 설치한다.

총 1380억원의 예산이 투입, 지난해 5월 착공했으며 2016년 5월 완공이 목표다.

현재 유출 수직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총 6곳 중 1곳의 공사를 마쳤다.



생보재단-서울시, 건강 협약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서울시와 10일 서울시청에서 서울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생보재단은 서울역, 왕십리역에 건강계단을 설치하고, 서울 중소기업 직원들의 건강 증진과 기업의 전사적 건강 친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한세대, 방과후학교 공모 선정

한세대 (사)한세에듀센터가 '2014 방과후학교 지역사회 기관연계프로그램 위탁 운영기관 공모'에 선정됐다.

센터는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성장발달과 뉴 스포츠'라는 프로그램으로 선정, 16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맥아더 UN군 총사령관 해임

1951년 4월 11일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회견을 통해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을 UN군 총사령관에서 해임하고 후임에 리지웨이 중장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전쟁에서 공산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만주지역에 핵공격을 하고 일본군을 참전시켜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트루먼의 격노를 샀기 때문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미국을 떠났던 맥아더가 귀국하자 미국민들은 열렬히 환영했지만 노병은 군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metroglobal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Mexico


canas, chilenas, chi
as chicas del mun

metro France


bureaux vides à la Défens
éfense, le taux de vacance est de 4 %.

파리 '라데팡스'는 유령도시?

파리 외곽에 위치한 '라데팡스' 지구에 1000여 곳의 사무실이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데팡스는 파리 중심에서 서쪽 외곽에 위치한 신도시로 현대적 건물 및 상업적 특징이 돋보이는 지역이다. 지난 7일 발표된 한 분석에 따르면 라데팡스 지역의 사무실 공실률은 7.5%다. 총 390만㎡에 달하는 공간이 비어있는 셈이다.

metro Russia


На улицах поста
двухметровые

모스크바 부활절 '거대 달걀' 눈길

모스크바시가 거대한 부활절 달걀 설치 등 다양한 부활절 행사를 계획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활절을 기념해 모스크바 교회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교회 광장을 대형 부활절 달걀로 꾸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형 달걀에는 러시아 전례 동화 속 등장인물들과 성당 등을 그려 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metro Colombia


Donar piel: su aporte a las mujeres que son quemadas con ácido

'묻지마 황산 테러' 피부조직은행 분주

최근 1주일 새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4건의 황산 테러가 연이어 발생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소아차 지역에 거주하는 루스 아드리아나 후라도(43)라는 여성이 테러의 희생양이 됐다. 길거리를 걸어가는 그에게 황산을 뿌리고 달아나던 범인은 주변 행인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당국도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콜롬비아 내무부는 테러범들에게 적용되는 형량을 무겁게 늘리는 법 개정에 착수했고, 황산 등 위험물질에 대한 판매 규정도 더욱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황산 테러가 잇따르면서 '연방 피부조직 은행'도 바빠졌다. 2010년 가을에 문을 연 이곳은 기부자로부터 피부조직을 받아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한다. 테러 피해자들은 현재 시몬 볼리바르 병원에 입원해 이 은행으로부터 조직을 지원받아 피부이식 치료를 받고 있다.

피부 조직 은행의 베르난도 카마초 박사는 "현재 은행이 기부받은 피부는 12만㎠ 정도"라면서 "은행 설립 이후 기부량은 계속 늘고 있지만 아직도 피부 조직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실제 이 은행에 매달 기부되는 피부는 2000~4000㎠밖에 되지 않아 필요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몬 볼리바르 병원에 따르면 테러 피해자 치료에 필요한 피부조직은 매달 5000㎠에 달한다.

카마초 박사는 "기증된 피부는 고통받는 타인을 위해 가치 있게 쓰인다"면서 시민들의 피부 기증을 촉구했다.

피부조직 기부를 희망하는 사람은 콜롬비아 보건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부자 등록을 하면 된다. 기부자의 피부조직은 사후 기증된다.

/앙헬라 페레즈 기자·정리=조선미기자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온라인 지도제작 업체 '섹시 지도' 화제…브라질 등 관능미 으뜸



어느 나라의 여성들이 세계에서 가장 '섹시'할까? 이런 발칙한 질문에 당당히 '해답'을 들고 나온 기업이 있다. 그것도 친절하게 국가별 '섹시지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지도까지 만들었다.

온라인 지도 제작업체 '타겟 맵'이 내놓은 이 가상 지도에 따르면 브라질, 콜롬비아, 에스토니아, 그리고 라트비아의 여성들이 세계에서 가장 성적 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은 인종적 다양성이 높아 성적 매력이 뛰어난 혼혈이 많고, 소련 연방의 일원이었던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는 동유럽의 대표적 미인 국가로 유명하다.

지도는 '매우 섹시' '섹시' '평균' '별로 섹시하지 않음' '절대 섹시하지 않음' 등 총 5개로 섹시함의 단계를 나눴다. 한국 여성은 일본 여성과 함께 '섹시'에, 중국 여성은 '평균'에 들어갔다.

멕시코 여성들은 스페인, 칠레, 에콰도르, 영국, 포르투갈, 독일, 그리고 호주 여성들과 함께 중간 단계에 선정됐다. 스페인 및 중남미 여성들의 미모가 뛰어나다는 소문이 말 그대로 소문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지도 제작에 참여한 오스카 페레즈는 "섹시하고 관능적인 여성들은 육체에서 뿜어져나오는 매력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면서 "이들은 성격도 좋고 자기만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방법을 안다"고 말했다.

섹시 지도를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주부 로살바 에스피노사(47)는 "콜롬비아 여성들이 역시 가장 아름답다"면서 "그들은 몸매까지 완벽해 여자들의 질투를 자아낸다"고 말하며 웃었다.

반면 멕시코에 거주하는 하비에르 가르시아(25)는 "나에겐 프랑스 여자들이 제일 섹시하다. 매력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동시에 키도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2013년 '미스 트래블'이라는 회사가 미국인을 상대로 진행한 '관능미' 설문조사에서는 미국 여성들과 함께 콜롬비아, 브라질 여성들이 공동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빅토르 고메즈 기자·정리=조선미기자



NCSI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6년연속 소주부문
국가고객만족도 1위
어느
부드러운 봄날
처음처럼
HAPPY SHAKE!
흔들어 마시는 물이 좋은 소주
처음처럼
부드러운 18도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market index <10일>

코스피	2008.61	(+9.66)
코스닥	555.10	(+2.88)
금리(국고채 3년)	2.86	(변동없음)
환율(원·달러)	1037.50	(−1.80)

뉴스&뉴스



'러시아 대게 맛있어요'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에서 10일 모델들이 시중가 대비 최대 45%가량 저렴한 러시아산 활 대게를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는 유통 과정을 축소하고 사전 직거래 계약을 통해 러시아산 활 대게 특대 사이즈(1~1.2kg)를 2만9900원에, 대 사이즈(0.8~1kg)를 2만7500원에 판매한다. /신세계 제공

수출입 물가 동반 하락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 지난달 수출입물가가 동반 하락했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수출입물가지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가지수는 90.7로 2월보다 0.4% 낮아졌다. 수출업체가 같은 상품을 팔아도 손에 쥐는 돈이 원화로 평균 0.4% 줄었다는 의미다. 기업 채산성이 약간 나빠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중국의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석유제품과 철광 제품 수출가격이 모두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민지기자

층간소음 기준 마련

●아파트,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 입주민 간 층간소음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중재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환경부와 함께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부령을 마련해 1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규칙에서는 층간소음의 범위를 ▲아이들이 뛰는 등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피아노·바이올린 같은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 전달 소음으로 구분했다. 이때 위아래 세대뿐 아니라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포함했다. 단 욕실 등에서 물을 틀거나 내려 보낼 때 나는 급배수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트위터·페북 자주 하면 이혼확률 높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외도·불륜·이혼 등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화제다.

9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대 언론학부 박사과정생인 러셀 클레이튼이 학술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 번째 바퀴: 트위터 사용이 관계, 불륜, 이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트위터 사용자 581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작성된 이 논문에 따르면 트위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이 탓에 배우자·파트너와 갈등을 겪을 확률이 매우 높았다. 또 트위터 사용에 따른 이런 갈등이 정신적·육체적 외도, 결별, 별거, 이혼 등으로 이어질 확률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클레이튼은 논문을 통해 "만약 트위터나 페이스북 탓에 배우자·파트너와 갈등을 겪는다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부 커플들이 하듯 SNS 계정을 공유해 관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국명기자 kmlee@

환율 장중 1040원 무너졌다

issue&view
'환율 쇼크' 한국경제 비상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환율이 장중 1030원 초반까지 뚝 떨어지면서 '올해 상반기 중 환율이 1000원까지 내려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거래가 시작되자마자 1030원대까지 하락했다. 박스권으로 인식되던 1050원 선을 하향 돌파한 지 하루 만이다.

그러나 중국의 무역지표 부진,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 등으로 환율 1040원 선을 가까스로 지켰다. 결국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원 내린 1040.2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이 또다시 하락한 것은 밤사이 공개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3월 의사록이 양적완화 조기 종료 전망을 다소 누그러뜨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달러 약세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심화됐다. 회의록에 따르면 한 연방준비제도 위원은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예상이 빨라 연준이 양적완화를 조기 축소하는 쪽으로 오해가 생길까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달러화 약세와 위험자산 선호 현상에 따른 원화 강세 기조는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1050원 선이 지켜지다가 뚫리면서 대기 매물이 한꺼번에 나와 단기적으로 시장이 하락에 탄력을 받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더욱이 외환 전문가들 사이에선 "올 상반기 중 환율이 1000원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 당국 역시 최근 며칠 간의 원화 강세 속도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외환시장 개장 직후 최희남 국제금융정책국장 명의의 메시지를 통해 "어떠한 방향으로든 단기간에 시장 쏠림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이어 "외국인 자금 유·출입과 역내·외 시장 거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은은 환율 변동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쏠림 현상이 심화된다면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녀와 함께 바람을 가른다' 혼다코리아가 미들급 크로스오버 모터사이클 2종 NC750X와 인테그라의 2014년형 신형 모델을 10일 출시했다. 혼다의 중대형 미들급 어드벤처 모터사이클의 대표 모델인 NC750X는 기존 모델 NC700X의 배기량을 670cc에서 745cc로 개선하며 NC750X로 모델명이 변경됐다. /혼다코리아 제공

이주열 총재 첫 금통위 기준금리 2.5% '동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로 11개월 연속 동결했다.

이주열 한은 신임 총재가 처음으로 주재하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11개월 연속 동결을 유지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4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2.50%)에서 유지하기로 한 결정은 금통위원 만장일치였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의 이번 결정은 시장의 예상과도 일치했다. 앞서 국내 채권시장 전문가들 99% 이상은 4월 금통위에서 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채권 전문가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와 신흥국들의 금융 불안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있다"면서도 "대내적으로는 금리 변동을 가져올 요인이 적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이 총재는 "경제성장률이 올해 4.0%, 내년에는 4.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면서 "성장세는 1월에 봤던 것과 별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김민지기자

바이오화학 사업 육성 본격화

산업부, 5년간 842억 투입

정부가 바이오화학 산업 육성에 나선다. 향후 5년간 842억원을 투입해 사업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석유 의존 탈피 및 온실가스 배출 규제 등 친환경 무역규제 환경에 대응하고, 친환경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신성장 동력으로 바이오화학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842억원을 지원해 불확실한 시장 수요와 대규모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 등으로 기술력과 생산 인프라가 미흡한 바이오화학의 산업 기반 구축과 조기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자동차·섬유·전기전자 등 주력 산업과 연계해 원료 생산부터 소재 및 시제품 양산 단계까지 전 주기적인 연구·개발(R&D)분야를 신규 지원한다. 또 바이오화학의 원료가 되는 바이오슈가(sugar) 대량생산 기술부터 부품 국산화를 위한 소재 개발, 바이오화학 제품 양산체제 마련을 위한 데모플랜트 구축까지 전 주기 기술 개발을 위한 6대 전략과제를 지원한다.

바이오화학 산업은 기존 석유화학과 비교해 지속 성장이 가능한 원재료인 바이오매스로부터 생물·화학적 공정을 통해 플라스틱을 비롯한 모든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환경 친화적 산업이다. 향후 자동차·전기전자·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품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화학 제품의 국내 총 생산액은 5054억원으로 이중 수출은 972억원이고 최근 5년간 생산은 연 16.3%, 수출은 연 18.1%씩 증가했다.

정만기 산업기반실장은 "친환경 바이오화학 제품 생산 기술은 새로운 환경 무역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석유화학 제품을 대체·보완하는 핵심적인 기술"이라며 "향후 세계 수준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 개발 투자는 물론 바이오화학 기술인력 양성과 인프라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유주영기자 boa@metroseoul.co.kr

부당대출로 얼룩진 금융권 도쿄지점

금감원, 국민·우리·신한·기업銀 특별검사

지난해 비자금 조성과 횡령 의혹으로 금감원의 조사를 받던 중 자살한 국민은행 직원에 이어 우리은행 전 도쿄지점장도 지난 8일 숨진채 발견되면서 시중은행의 일본 도쿄지점 부당대출 의혹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민·우리·신한·기업은행 도쿄지점에 특별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국내 은행의 모든 해외 지점 대출 상황도 전면 점검키로 했다.

현재 부당대출 문제가 불거진 곳은 일본 도쿄지점뿐이지만 해외 지점들이 금융 당국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총체적인 재점검을 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한때 탄탄한 출세 코스였던 도쿄지점장 자리는 각종 의혹과 비리에 부딪히면서 살얼음판이 됐다. 왜 유독 일본 지점에서만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것일까.

◆150개 해외 점포 중 일본만 문제

전문가들은 일본 금융권에서 관행적으로 굳어져왔던 리베이트와 실적 부진,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등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특히 국내 은행들의 해외 점포 150여 개 가운데 10여 개에 불과한 일본 점포와 도쿄지점에서만 잇따라 발생한 부당대출 사건을 연계해 볼 때 일본 금융권에서 가지는 특수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사태의 경우 도쿄만이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일본에서는 대출을 받을 때 고객이 은행 직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대출 커미션'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비자금을 만들거나 횡령을 할 수 있다는 것.

김 연구위원은 "특히 일본의 이러한 관행을 자연스럽게 여기면서 따라 했던 한국의 시중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해외 지점 근무가 승진 코스의 발판이거나 인사 보상 차원의 하나로 여기는 일부 시각도 문제로 지목된다.

현지 점포의 결정권자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전결권 또한 문제로 꼽혔다. 그는 "대출 관행을 미뤄 짐작건데 일본에서는 지점장이 전결하는 권리도 크고 이를 통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돈 나올 구멍은 리베이트뿐?

떨어지는 수익성도 문제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일본에 진출한 신한·우리·하나·기업·외환 등 5개 지점들의 당기순이익은 2011년 4953만달러에서 지난해 3977만 달러로 19.7% 떨어졌다.

총자산순이익률(ROA) 역시 0.60%에서 0.47%로 내려가 지난해 상반기 은행들의 전체 해외 점포 ROA(0.83%)에 훨씬 못 미치는 수익성을 기록했다.

이름을 밝히기 거부한 업계 관계자는 "일본에 진출한 국내 은행들의 주 고객들은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나 한국인,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 등으로 한정된 시장에서 해외 지점사들 간의 실적 경쟁도 있었을 것"이라며 "일본 시중은행과 비교해봤을 때 도 2금융권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제로' 금리인 일본에서 한국계 은행들은 연 1.5~3% 이상의 금리를 받으면서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대출브로커가 개입해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권은 현지 진출한 한국 금융사에 대한 정보와 검사 교류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일본 금융청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대출을 통한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해서는 모든 해외 점포에 대해 전면 재점검할 방침"이라며 "해외 지점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지표와 여신 규모 등 상시 감시 지표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일화, 초정탄산수 새롭게 선보여 10일 경기도 구리시 일화 본사에서 모델들이 새로 리뉴얼된 초정탄산수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에 리뉴얼해 출시하는 제품은 250㎖캔제품을 비롯해 500㎖와 1.5ℓ 페트 제품이다. 일화는 이달 중 라임 탄산수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일화 제공

커피찌꺼기 변신은 무죄!

찐순이 경제학

요즘 커피전문점에 가보면 커피 찌꺼기를 마음껏 가져갈 수 있도록 놓아둔 곳이 많다. 앞으로 커피 찌꺼기를 발견하면 하나씩 챙겨 가져가는 센스를 발휘해보자. 알뜰살뜰 살림에 요긴하게 쓰인다.

우선 커피 찌꺼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남아있는 물기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 신문지에 꼼꼼하게 잘 펴서 따뜻한 햇볕에 바싹 말린 후 사용하면 된다.

커피 찌꺼기는 묵은 때를 청소할 때 딱 좋다. 특히 기름기 제거에도 탁월해 프라이팬의 기름때도 지울 수 있다. 키친타월을 이용해 기름을 닦아낸 뒤 커피 찌꺼기를 뿌리고 닦아주면 기름때가 말끔히 없어진다.

싱크대 청소에도 효과적이다. 커피 찌꺼기를 전체적으로 바르고 고무장갑으로 비벼서 닦아주면 끝! 안 닦이는 부분은 못 쓰는 칫솔이나 솔로 문질러주면 된다. 녹슨 우산의 녹도 제거해준다. 마른 수건으로 커피 찌꺼기를 묻혀 녹슨 우산을 닦아주면 반짝반짝 광이 난다.

방향제나 냄새제거제로도 사용된다.

일회용 컵이나 커피 여과지 등에 커피 찌꺼기를 넣은 뒤 냉장고, 신발장, 화장실, 옷장 안에 넣어두면 냄새를 싹 잡아준다. 단, 커피 찌꺼기는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치·반찬 냄새가 밴 밀폐용기는 커피 찌꺼기에 물을 약간 뿌려서 스크럽 형태가 되게 한 뒤 닦아주면 좋다.

/김민지기자 minji@

올 봄 분양 대전 성공전략, 이것이 포인트

3대 키워드, 입지-분양가-특화설계로 유혹

봄 분양 대전이 한창인 가운데 알짜배기 입지, 착한 분양가, 차별화된 특화 설계가 성공 분양 3대 키워드로 뜨고 있다. 좋은 위치에 입지해 있더라도 가격이 저렴하고, 비슷한 조건이라면 고객 맞춤형 특화 설계를 갖춘 단지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서다.

10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주변보다 우월한 입지에 시세보다 저렴하면서도 특화 평면까지 적용된 아파트가 최근 잇따라 공급 중이다. 아파트를 고르는 수요자들의 안목이 까다로워지면서 이들 삼박자를 갖춰야만 분양 시장 회복의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계약 나흘 만에 100% 계약을 기록한 위례신도시 '엠코타운 센트로엘'의 경우 주변보다 저렴한 3.3㎡당 1700만원대의 분양가, 신도시 핵심으로 꼽히는 휴먼링 입지, 특화 수납공간 및 커뮤니티시설 등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제2의 '엠코타운 센트로엘'을 꿈꾸는 단지들이 가격, 입지, 특화 설계를 앞세워 소비자 공략에 나서는 모습이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는 3.3㎡당 분양가가 최저 1800만원대, 평균 1900만원대로 강남권 전세가 수준이다.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역세권 아파트로 명일중, 배재고, 한영외고 등 학군이 우수하다. 가변형 벽체 설계, 양면 현관 수납장, 주방 펜트리 등의 설계가 눈길을 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아크로힐스 논현'은 평균 3.3㎡당 분양가가 3080만원으로 인근 분양 단지 3150만원보다 낮게 책정됐다. 강남권에서 보기 드문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 융자 조건이다. 9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선정릉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단지 내 횡단보도, 문턱, 계단 등의 장애물을 없앤 안심 설계가 적용됐다.

/박선옥기자 pso9820@

고객정보 추가 유출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서 고객정보가 추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에 털린 13만7000건을 합치면 고객정보 유출 건수는 모두 19만여 건으로 늘어난다. 이들 정보는 대출중개업자 등을 통해 시중에 흘러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창원지검이 한국씨티은행, 한국SC은행의 고객정보 유출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대출업자에게 압수한 USB에서 추가로 발견된 고객정보 300만여건을 금융감독원이 분석한 결과, 이들 은행에서 5만여 건의 추가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SC은행 4만 건, 한국씨티은행 1만 건 등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고객정보 유출 규모는 한국SC은행이 10만3000건, 한국씨티은행은 3만4000건이었다.

/김민지기자

1분기 ICT수출 사상 최대

400억 달러 돌파

3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신흥국과 주요 교역국 수출 호조로 수출 증가율이 상승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3월 ICT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9% 증가한 149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국·미국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수출 확대 및 휴대전화·반도체·디지털 TV 품목의 선전에 따라 수출 증가율이 상승했다. 이에 따라 1분기 수출이 412억 달러, 무역수지는 205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3월 ICT 수지는 75억5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국내 산업 무역수지 흑자(41억9000만 달러) 달성에 기여했다.

3월 ICT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0.3% 증가한 74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반도체·디스플레이패널·디지털TV 등이 증가한 반면, 인쇄회로기판(PCB) 등 접속 부품·주변기기 등은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입은 일본·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감소했지만, 중국·아세안·중동 등 신흥국은 증가했다.

휴대전화 수출은 부분품 수출 호조 및 '갤럭시S5' 효과로 전년 동월 대비 30.3% 증가한 24억달러를 기록했다. 스마트폰 수출은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지난 1월 이후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수출 증가를 보였다.

부분품 수출은 해외 거점의 보급형 스마트폰 생산 확대와 맞물려 1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국내 업체의 기술력과 세계 반도체 시장 성장세가 맞물려 반도체 수출은 18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은 TV용 디스플레이 패널 수요 정체와 대중국 수출 부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한 23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LCD 패널은 전년 동월 실적 대비 11.7% 감소한 21억1000만 달러, 부분품 수출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2억8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디지털TV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3.8% 증가한 6억3000만 달러,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은 전년 대비 10.2% 감소한 5억4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세종=유주영기자 boa@

뉴 미니 3세대 모델 국내 첫선

BMW 올 4천대 목표



BMW 그룹 코리아 김효준(가운데) 대표가 뉴 미니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1959년 처음 탄생했던 미니가 3세대로 진화해 10일 국내에 첫선을 보였다.

경기도 파주시 출판단지에서 공개된 뉴 미니는 BMW 그룹이 인수한 이후 2001년 1세대, 2007년 2세대가 나왔고 이번에 3세대 모델로 선보였다.

국내에 출시된 모델은 쿠퍼와 쿠퍼 하이트림, 쿠퍼 S 등 세 가지로 출시된다. 쿠퍼는 3기통 1.5ℓ 가솔린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136마력, 최대 토크는 22.4kg·m를 낸다. 기존 엔진에 비해 다운사이징됐으면서 출력은 122마력에서 136마력으로 높아진 것. 쿠퍼 S는 4기통 2.0ℓ 엔진을 장착해 최고 출력 192마력의 고성능을 내고, 정지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은 6.7초에 끝낸다.

차체 크기는 구형보다 98mm 길어졌고 너비는 44mm, 높이는 7mm 커졌다. 휠베이스는 28mm 늘어난 2495mm로 커져 실내 공간이 더욱 넉넉해졌다. 트렁크 공간은 구형보다 32% 커진 211ℓ다.

뉴 미니는 모델에 따라 8.8인치 대형 디스플레이를 장착하고 디스플레이 주변을 감싸는 LED 링이 처음 적용됐다. 특히 쿠퍼 S는 미니 최초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장착했다. 이 장비는 주행 속도와 내비게이션 등의 정보를 운전자에게 전달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미니 커넥티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셜 네트워크와 맞춤형 사이트 요약(RSS) 뉴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가격은 쿠퍼가 2990만원, 쿠퍼 하이트림은 3720만원, 쿠퍼 S는 4240만원이다. 오는 7월부터 발효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인하분이 미리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디젤 모델인 쿠퍼 D는 하반기에 상륙할 예정이다.

BMW 그룹 코리아의 김효준 대표는 "지금까지 700대가 계약됐고, 올해 4000대 판매가 목표"라고 밝혔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SKT 통 크게 쏜다 SK텔레콤이 창사 30주년을 기념해 1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전국 매장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데이터 300MB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SK텔레콤은 추첨을 통해 총 604명에게 '30년간 통신비 무료' 등 대규모 경품을 증정한다. /SK텔레콤 제공

아이폰·갤럭시 저장용량부족 걱정 끝

샌디스크 무선 메모리장치 '커넥트' 출시

저장용량 걱정 없이 가족·친구와 함께 찍은 동영상과 사진을 간단하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샌디스크는 10일 서울 여의도 마리나 요트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장점을 지닌 무선 플래시 메모리 저장장치인 '샌디스크 커넥트 무선 플래시 드라이브'와 '샌디스크 커넥트 무선 미디어 드라이브'를 선보였다.



USB 형태의 샌디스크 커넥트 무선 플래시 드라이브는 와이파이로 아이폰·아이패드·갤럭시S5 등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샌디스크 커넥트 무선 플래시 드라이브에 저장된 사진·문서 등은 최대 8대 단말기에서 연결해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고 최대 3대에서 동영상을 스트리밍으로 동시에 볼 수 있다. 특히 최대 45m까지 연결할 수 있어 가방에 넣어 놓고도 필요한 파일을 편하게 꺼내 보는 것이 가능하다.

포켓 사이즈인 샌디스크 커넥트 무선 미디어 드라이브는 SDHC·SDXC 메모리 카드 슬롯이 있어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에 있는 사진도 바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최대 5개의 서로 다른 HD 동영상을 동시에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다. 샌디스크 커넥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영화·음악·사진·문서 등을 보다 편리하게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심영철 샌디스크 코리아 유통사업본부 본부장은 "아이폰·갤럭시 등에서 저장공간이 부족해 사진·동영상·음악 등을 지워야 하는 불편함을 샌디스크 커넥트 제품군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인터넷이나 케이블 연결 없이 와이파이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의 활용성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

현대 문정2구역 엠스테이트 복합단지 상업시설 'M7' 분양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 2블록 '엠스테이트(MSTATE)' 상업시설 엠세븐(M7)이 분양중이다.

엠스테이트는 상업시설을 비롯해 오피스·지식산업센터·오피스텔 등이 한 곳에 들어서는 복합단지다. 지하 5층~지상 최고 17층, 3개 동 규모로 전체 연면적이 삼성동 코엑스(11만 9000㎡)보다 넓은 15만8198㎡에 달한다.

그중 M7은 연면적 3만6449㎡, 점포 수 총 230여 개 규모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지상 1층 기준으로 3.3㎡당 2900만원대이며, 송파 일대 상업시설 분양가보다 500만원 이상 저렴한 수준이다.

시행사는 한국자산신탁, 위탁사는 ㈜엠에스뉴브가 선정됐고, 국내 시공능력 평가 1위의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아 사업의 안정성을 한층 높였다.

◆지하철 8호선 문정역 직통 연결

M7은 문정지구 내에서도 알짜 입지로 평가받는다. 택지지구의 경우 역세권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고 임대료 등의 가격 차를 보이는데, 엠스테이트는 지하철 8호선 문정역과 지하로 바로 연결되는 초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여기에 문정지구 좌측으로 위치한 KTX 수서역도 오는 2015년 개통 예정이라 M7 준공 시기에는 더욱 편리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다.

SH공사가 이벤트·문화공간으로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있는 컬처밸리는 물론, 광장과도 직접 접해있어 고객들이 모이는 깔때기 효과가 기대된다. 또 컬처밸리·광장과 같은 메인 시설물과 함께 지구를 대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돼 향후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총 230여개 점포 일주일 내내 활성화

총 230여 개의 점포로 조성되는 상업시설



M7은 월요일(Monday)부터 일요일(Sunday)까지 일주일 내내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주중에는 문정지구 및 단지 내 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업무시설의 탄탄한 상주 수요를 확보할 수 있고, 주말에는 문정 로데오거리의 유동인구를 흡수하는 것과 동시에 인근 대규모 올림픽패밀리아파트(4494가구)도 배후 고객으로 두고 있다.

아울러 프랑스의 샹젤리제 거리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유럽형 디자인을 도입, 고객들의 이목과 감성을 이끄는 유러피안 스트리트몰 형식으로 꾸며지는 것이 특징이다.

단지 내·외부 및 보행공간에는 권기수 작가의 '동구리' 등 다양한 전시물을 설치한 아트리움이 조성된다. 30~40대 직장인을 모티브로 제작된 '동구리'를 통해 바쁜 현대인들의 감성자극 및 일상에서 힐링의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문화 체험형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아울러 억새로 둘러싸인 힐링광장, 하늘정원, 포켓가든, 남녀 휴게실, 담소공간 등 녹지와 휴식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현대인들의 지친 삶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공간도 마련된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196-9번지 일대에 마련됐다. 준공은 2016년 9월 예정이다. 문의 번호: 02)3432-5714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LG전자 화려함 뽐내 LG전자는 10일부터 이틀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디지털 케이블TV 쇼 2014(KCTA 2014)'에 부스를 설치하고 77형 울트라HD 곡면 올레드 TV 등을 비롯한 울트라HD TV 신제품을 선보였다. 관람객들이 LG 울트라HD TV를 살펴보고 있다. /LG전자 제공

中企 "우리 기술력 수준 76.6점"

국내 중소기업들은 자사의 기술력 수준을 동 종업계 세계 최고를 100점으로 봤을 때, 평균 76.6점에 해당된다고 자체 평가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가 매출액 1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국내 355개 중소 제조업체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수요현황 및 촉진과제' 조사 결과, 동종업계 세계 최고(100점) 대비 기술력 수준이 70~90점대에 속한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43.3%로 가장 많았다. 90~100점 구간은 29.0%, 70점 이하는 27.7%로 나타났다.

보유 기술의 특성으로는 '연구·개발(R&D)로 개발한 제품 혁신·공정 개선·신제품 설계 기술'(22.4%), '독자적 제품·공정 개선 기술'(16.2%) 등 '중간 기술'이 53.5%, '단일 공정의 특정 설비능력에 의존'하는 등 '범용기술'이 10.7% 등 응답 중소기업의 64.2%가 '중간 기술 이하'라고 평가했다. 응답 기업의 35.8%는 보유한 기술을 '일부 선진기업의 독과점 기술·제품과 경쟁하거나, 수입 대체를 이루는 기술'(15.4%),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특허 또는 원천기술'(8.1%) 등 '고기술'로 응답했다.

/김두탁기자 kimdt@

한강신도시 인접한 검단풍림아이원, 실입주금 6,700만원 눈길



한강신도시의 지구 내 납골당 및 쓰레기소각장 운영, 지하철 연장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인접한 검단지구가 주거 및 투자 적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 강서구 · 마포구 · 일산 주민들과 인천시 전월세 세입자마저 검단지구로 몰리면서 검단 풍림아이원 아파트가 구 33평형을 최고 1억까지 파격 할인 분양하여 인기를 끌고 있다.

검단 오류동 풍림아파트는 경인운하(아라뱃길) 1km, 제2외곽순환도로 중앙대검단캠퍼스 1km, 홈플러스 200m 내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중앙대 및 중앙대 병원의 검단 이전이 확정 되었고 인천 지하철 2호선이 개통이 되면 개통 전후의 부동산 가치가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지역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분양가의 30%를 할인 해주며 분양금의 구 33평형 실입주금이 6,7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서울 인천의 웬만한 빌라 20평형대 전세가의 30~40%밖에 안 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고 임대사업시 보증금 2000/60만원이며 임대수요가 대기하는 곳이라 수도권에서 분양문의가 쇄도한다"고 전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각종 부동산 규제로 거품이 걷히고 할인분양 등으로 미분양 물량이 소진돼 공급이 급감한 만큼 수년 내에 부동산 시장 활성화 될 것이며, 발품을 팔면 좋은 집을 좋은 조건으로 마련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분양신청은 어떤 경로로 정보를 얻었던 분양사무실에 직접 전화해서 위치 및 담당자를 확인한 후 분양사무실을 방문해서 해야 한다고 분양 관계자는 덧붙였다.

분양문의 : 032-568-1606

'응사', 최고 케이블TV 프로에

2년 연속 대상 영예



CJ E&M의 '응답하라 1994'가 올해 케이블 TV 최고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이로써 '응답하라' 시리즈는 지난해 '응답하라 1997'에 이어 2년 연속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0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14 케이블TV방송대상' 총 13편의 수상작을 선정한 후 시상식을 개최한다.

'응답하라 1994'(응사)는 지방 출신 대학생들이 신촌 한 하숙집에 모이면서 벌어지는 파란만장한 상경기를 탄탄한 구성력과 기획력을 바탕으로 그려내 높은 평가를 받았다.

PP작품상에는 교양·다큐멘터리 부문 '정전60년 남북 공존의 길을 찾아서'(기독교방송), 교육·어린이 부문 '브레인 점프점프'(대교어린이TV), 최고의 공부 '후 엠 아이'(SBS비즈니스네트워크), 드라마·엔터테인먼트 부문 '실업급여로맨스'(이채널), 창의콘텐츠 부문 '영상기록 서울 시간을 품다'(교통방송), 문화교류 부문 'K-사이언스'(YTN)가 각각 선정됐다.

'정전60년 남북 공존의 길을 찾아서'는 1980년 남북경협 이후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사업 등으로 잠시 활기를 띠었으나 이내 정치 문제로 사그라지며 불거진 여러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더 나아가 남북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그린 작품이다.

'브레인 점프점프'는 동화와 놀이 문화를 통해 어린이들의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획된 작품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고의 공부, 후 엠 아이'는 시청자 사전 질문을 강연 내용에 반영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으로 조정래, 베르나르베르베르 등 국내외 유명 작가들이 출연했다.이는 기존의 일방적인 스튜디오 강의 형식을 탈피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업급여 로맨스'는 취업난, 실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의 삶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준 드라마다.

SO작품상은 정규방송 부문 '생방송 토크콘서트 이야기 판'(현대HCN서초방송)·'달구벌나들이 길'(티브로드 대구방송), 특집방송 부문 '제주의 슬픈 보석 가시리'(KCTV제주방송), 지역보도 부문 '폐광산 죽음의 그림자'(CJ헬로비전영동방송)·'광주 시내버스, 지역별 편차'(CMB광주방송)가 선정됐다.

'생방송 토크콘서트 이야기 판'은 지방자치단체장, 시민단체 등이 출연해 지역 현안에 대한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제주=서승희기자

'케이블TV쇼' 화려한 개막

UHD 상용화 선포… 콘텐츠 채널 구축

케이블 TV 업계가 초고화질(UHD)방송 상용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0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4 디지털케이블TV쇼'에서 세계 최초 '케이블 UHD 상용화 선포식'을 열고 본격적인 서비스의 시작을 알렸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디지털케이블TV쇼는 케이블 TV 신기술·장비 소개와 미래 비전 공유, 관련 산업 최고경영자(CEO) 및 오피니언 리더들의 공론의 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고 있는 국내 유일의 방송통신 융합 미디어 전문 박람회다.

올해 행사는 '스마트 케이블, 더 큰 즐거움(Smart Cable, Experience More)'을 주제로 '다양한 산업이 융합되는 스마트 플랫폼, 케이블이 TV의 가치를 더한다. 시청자에게 더 큰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것이 케이블이 꿈꾸는 스마트 세상'이라는 내용을 담아 진행됐다.

특히 케이블협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케이블 업계가 UHD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케이블 업계는 홈초이스를 통해 UHD 전용 채널 유맥스(U-max)를 설립, 서비스 상용화를 준비해왔다. 홈초이스는 UHD 콘텐츠 수급 및 유맥스 운영을 비롯해 UHD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유맥스는 올해 200여 시간 분량의 UHD 콘텐츠를 수급하는 등 2016년까지 콘텐츠 수급을 위해 약 4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브라질 월드컵, 인천 아시안게임 등 올해 열리는 스포츠 빅 이벤트도 실감 영상으로 전달하기 위해 UHD 특집방송 편성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케이블 업계는 우선 별도의 셋톱박스가 없는 소프트웨어 셋톱박스(TV 내장형) 방식으로 UHD 실시간 방송 및 VOD 상용 서비스를 실시하고 하반기 UHD 셋톱박스가 출시되면 공동구매 물량 10만 대를 우선 공급받아 서비스를 보급할 예정이다.

CJ헬로비전, 티브로드, 현대HCN, CMB 등 케이블 업계는 세계 최초 UHD 상용화의 의미를 담아 유맥스 채널을 1번에 배치(씨앤앰은 33번)하고 VOD 서비스를 위해 'UHD 특별관'도 마련할 계획이다.

업계는 이날 케이블 UHD 상용화를 알리기 위해 지역 거점별 시연행사도 가졌다. 티브로드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UHD 방송을 선보이고, CJ헬로비전은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의 한 가전 매장에서, 씨앤앰은 서울 압구정동의 가전 매장에서 각각 시연회를 열어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케이블 UHD 방송을 시청한 한 시청자는 "집에 있는 HDTV보다 화질이 훨씬 좋아서 같은 프로그램을 봐도 더 감동적으로 느껴질 것 같다"고 말했다.

UHD 상용 서비스 선포에 맞춰 케이블협회는 이번 디지털케이블TV쇼 전시행사에 'UHD 테마관'과 '케이블TV 미래관'을 운영, UHD 방송의 미래를 소개했다. UHD 테마관에서는 UHD 관련 영상, 음향, 편집기 등을 전시했으며 케이블TV 미래관에서는 UHD 전용 채널 및 스마트 방송 핵심 서비스 등을 선보였다.

양휘부 케이블TV협회장은 "케이블 UHD 방송 상용화의 의미는 영상 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선도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콘텐츠 분야 등 방송 인프라에 2017년까지 약 6500억원을 투자해 UHD 생태계를 조성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최문기(왼쪽 일곱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양휘부(왼쪽 여섯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과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대표 등이 10일 제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4 디지털케이블TV쇼' 개막식에서 초고화질(UHD) 방송 상용화 선포식에서 버튼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제공

미래·테마관 볼거리 풍성

초고화질(UHD)을 구현한 케이블 TV와 스마트 기기가 만난 미래의 일상생활은 어떤 모습일까?

한국케이블TV협회는 10일 열린 '2014 디지털케이블TV쇼' 전시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케이블 UHD 방송과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케이블TV 미래관'과 'UHD 테마관'을 운영한다.

케이블TV 미래관은 '스마트 이노베이션, 스마트 라이프'를 주제로 일상생활과 접목한 스마트홈 환경을 전시했다. 집 안 내 에너지를 관리하고 보안을 책임지는 홈 오토시스템, 운동기구와 연결돼 혈압 등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원격 건강상담도 제공하는 스마트 헬스케어도 체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TV 시청 화면을 모바일 기기에서 동시에 보여주는 미러링 기능과 스마트폰으로 이어 보는 멀티스크린 기능도 보여준다. 집 밖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반려동물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원격으로 돌봐주는 펫 케어 서비스도 선보였다.

UHD 테마관에서는 소니가 카메라와 프로젝터 등 4K 라이브 시스템을 전시하고 델은 풀HD보다 4배 우수한 울트라 샤프 모니터로 더욱 선명해진 디스플레이를 공개했다.

이 밖에 개인 맞춤형 추천 주문형비디오(VOD) 등 클라우드와 빅데이터가 융합된 스마트 서비스도 다양하게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한편 전시장 한가운데 위치한 카페테리아에서는 케이블 광가입자망(FTTH) 기반의 기가 와이파이존이 설치됐고, UHD관에서는 UHD 전용 케이블 채널 유맥스가 KCTV 제주방송 상용망을 통해 실시간 방송에 나섰다. 아울러 케이블 UHD VOD와 클라우드 및 HTML5 기반 사용자환경(UI) 및 사용자경험(UX) 시연과 4K 카메라를 이용해 행사장을 UHD TV로 바로 시청하는 동시 중계 환경도 주목받았다.

한편 2014 디지털케이블TV쇼 전시장은 이날부터 11일까지(오전 10시~오후 5시) 이틀에 걸쳐 일반 참관객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제주=서승희기자 ssh814@

PRIME PHILHARMONIC ORCHESTRA

메트로신문 창간 12주년 기념

소프라노 신영옥과 함께하는 5월 어버이를 위한 음악회

지휘 | 여자경
바이올린 | 임지희
하프 | 김아림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2014. 5. 8(목)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 metro 메트로신문사
주관 |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입장권
R석 20만원 / S석 12만원 / A석 7만원 /
B석 5만원 / C석 2만원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합니다.

공연예매
SAC Ticket
www.sacticket.co.kr 02-580-1300
인터파크
ticket.interpark.com 1544-1555

공연문의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사무국
031-392-6422
www.primephil.net



실감전투 '워페이스' X박스360으로 즐긴다

22일 게임 마켓 플레이스서 제공

전 세계 게이머들과 실감 나는 전투를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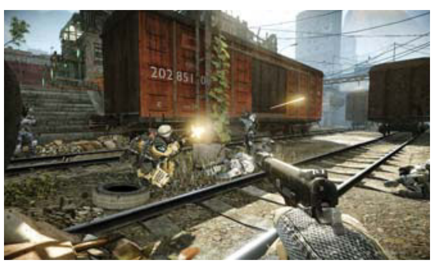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는 22일 게임 개발사 크라이텍(Crytek)의 1인칭 슈팅게임(FPS) '워페이스: X박스 360 에디션(Warface· Xbox 360 Edition)'을 X박스 게임 마켓 플레이스에서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전 세계 X박스 라이브 골드 멤버십 회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플레이할 수 있다.

'워페이스 X박스 360 에디션'은 라이플맨과 메딕, 엔지니어, 스나이퍼까지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4개의 병과를 선택할 수 있으며 협동 모드나 멀티플레이 대전이 가능하다.

특히 출시 시점부터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팬들에게 매일 새로운 협동 캠페인 미션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신규 맵, 무기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워페이스 X박스 360 에디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xbox.com/ko-KR/Marketplace/SplashPages/Warfac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국명기자 kmlee@



넥슨 '마비노기' 소설로 변신

인기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를 어린이용 책으로 만들어 어린이 도서 분야 매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넥슨이 재차 출판시장에 뛰어든다.

넥슨은 10일 인기 온라인게임 '마비노기'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소설 '마비노기 더 드라마 이리아'(학산문화사)를 출간했다.

이 소설은 이리아 대륙에서 펼쳐지는 영웅들의 갈등과 타협, 사랑을 사실적 묘사와 긴 장감 있는 줄거리로 그렸다.

소설은 상·하권 각 2권으로 나뉘어 있다. 한정판(1000부)에는 일러스트 브로마이드와 직소 퍼즐이 포함됐다. 넥슨은 모든 구매자에게 마비노기 게임 아이템을 주는 등 출간을 기념한 이벤트도 벌인다.

상·하권 각 320·282쪽. 각 권 9000원. 한정판 3만원.

'스페셜포스' 신규 총기 3종 추가

네오위즈게임즈가 서비스하는 인기 총싸움 게임 '스페셜포스'에서 진급 보상 시스템과 신규 총기 3종을 추가하는 봄 시즌 업데이트를 10일 단행했다.

먼저 새롭게 추가된 진급 보상 시스템은 다음 계급으로 진급한 회원에게 사병, 부사관, 위관, 영관, 장성 등 총 5단계로 나뉘어 계급별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용자들은 게임을 플레이하며 계급을 상승해 나가는 재미와 함께 최대 100만 포인트, 캡슐코인, 장비, 총기 70여 종 등 최강 아이템을 보상으로 획득할 수 있다. /박성훈기자



게임빌 기대작 '이사만루' 10일 출시

허구연 해설 등 리얼리티 더욱 극대화

'이사만루'덕에 인생 만루홈런

IT Cafe

게임빌 '이사만루' 정성용 PM



프로야구는 이제 국민 스포츠다. 2012~13년 700만 관람객이 야구를 즐겼고 올해는 역대 최다 기록을 다시 쓸 가능성이 크다.

이 좋은 시장을 게임업체들이 놓칠 리 없다. 온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야구를 즐길 수 있는 게임이 쏟아지는 이유다.

스마트폰 4000만 대 시대에 모바일 야구게임이 더욱 인기를 얻는 가운데 '군계일학'은 게임빌의 '이사만루'라 할 수 있다. 캐주얼 캐릭터가 아닌 실사 이미지를 적용해 리얼리티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으며 지난해 100만 다운로드를 가뿐히 넘어섰다.

이 게임의 최신 시리즈인 '이사만루2014'가 10일 출시됐다. 메트로신문은 출시 3일 전인 지난 7일 게임빌 서초동 본사에서 이 게임을 총괄 관리하는 정성용(34·사진) 과장을 만났다. 그는 게임을 소비자에게 완벽하게 연결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프로덕트 매니저(PM)다.

-야구게임을 관리하는 사람은 야구 마니아여야 하나.

아무래도 야구를 잘 아는 사람이 유리하다. 사회인 야구 리그에서 2년째 '2루수-1번 타자' 역할을 하고 있다. 글러브만 해도 투수용, 내야용, 외야용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 예전부터 야구에 빠진 아들을 두고 어머니께서 "야구가 밥 먹여주느냐"고 자주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린다. "야구가 밥도 먹여주고 차도 사주던데요."

-당초 출시 시기는 3월 말이었다.

프로야구 개막 직전에 게임을 선보이는 게 목표였다. 그런데 유저의 눈높이가 갈수록 높아져 이에 맞추다 보니 늦어졌다. 개발자들에게 제품을 빨리 보여달라고 닦달하는 게 PM인데 박카스값이 적지 않게 들었다.

-지난해 버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리얼리티를 더욱 극대화했다. 수비수가 공을 빠뜨리기도 하고 점프 캐치를 할 때도 있다. 그리고 특정 선수의 움직임을 더욱 세밀하게 담아냈다. 롯데 자이언츠 정대현, 삼성 라이온즈 박한이 등은 누가봐도 이 선수인지 알 수 있을 정도다.

아울러 허구연·한명재 콤비의 목소리를 넣어 TV 중계를 보는 듯한 재미를 얻을 수 있다. "이 타구는 안타가 될 거 같아요" 등 허구연 특유의 멘트를 들을 수 있다.

-모바일게임은 글로벌 시장을 뚫어야 대박을 낼 수 있다.

그렇다. 하지만 국내 프로야구를 소재로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심지어 미국 메이저리그도 북미에서나 통하는 상황이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과 같은 무대를 기반으로 국가 간 대항전이 가능하다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라이선스 취득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100억원 투입한 웹 RPG 무협 '신의칼' 17일 공개서비스

대만 국민게임 통할지 관심

NHN엔터테인먼트의 상반기 기대작 '신의칼'이 17일 공개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회사는 10일 4년·100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대만 최대 히트작 '신의칼'을 선보이고 서비스 일정을 확정했다.

신의칼은 PC게임으로는 중화권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대만 소프트스타의 히트작 '선검기협전'의 정식 판권을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유니티 3D 엔진의 커스터마이징 작업을 최적화해 정교한 그래픽과 음영 효과, 경쾌한 타격감 그리고 자연스러운 화면이 특징이다.



최고 100레벨까지 성장 가능하고 각각 5종의 PvP, PvE 모드를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던전과 길드 시스템도 제공해 이용자 간 활발한 인터랙션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100여 명의 개발자들이 4년에 걸쳐 공을 들인 작품으로 클라이언트 게임에 버금가는 스케일을 자랑한다.

지난해 해외에서 먼저 출시돼 중국의 여러 권위 있는 매체에서 '2013년 최고의 웹게임'에 선정됐고 특히 대만에서는 시나닷컴 기준 웹게임과 RPG 부문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해 '국민 게임'의 반열에 오르기도 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한국 공개 서비스를 17일로 확정하고 네이버 게임에서도 같은 날 채널링 서비스를 시작한다.

출시를 기념해 푸짐한 사은 이벤트도 열린다. 신의칼을 플레이하고 리뷰를 블로그나 카페, 미니홈피 등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에어와 넥서스5,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 /박성훈기자

목·어깨 통증, 두통, 만성 요통… 디스크 질환 적신호!

일자목, 골반 불균형, 휜다리등 체형 불균형… 초기에 잡지 않으면 심각한 디스크로 진행



오랜 직장 생활로 늘 목이 뻐근하고 양쪽 어깨가 무거운 느낌을 받아온 30대 회사원 A양은 최근 두통과 불면증, 그리고 손 저림 증상으로 한의원과 척추 전문병원을 찾아 신경 성형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치료 후에도 호전이 없자 여러 연예인들이 비슷한 증상으로 치료받았던 강남초이스병원 홍대점을 내원했다.

주치의인 김상욱 강남초이스병원 원장은 일자목이 오래돼 정상적인 유연성이 없어지면서 안면 비대칭과 거북목 증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으며 A양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후 두 군데 디스크 중기 질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김 원장은 약물 요법이나 시술적인 치료가 아닌 휘어지거나 틀어져 있는 골격 구조를 직접 손으로 바로잡는 도수치료와 뼈와 근육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개인 맞춤형 운동치료를 통해 A양을 치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원장의 진료 이후 A양은 주 2회씩 체형 교정을 위해 도수치료와 자신에게 맞는 운동치료로 신체 불균형을 바로 잡았으며 치료 시작 3개월 후에는 두통과 불면증을 완벽히 해결할 수 있었다.

또 40대 남자 회사원 B씨는 늘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해 평소에 허리가 뻐근한 느낌을 자주 받아왔다. 특히 최근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개운치 않은 느낌과 골반이 무거운 느낌으로 직장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통증을 참지 못한 B씨는 회사 근처 한의원과 정형외과에서 일자허리 및 골반 불균형을 진단받고 치료받았으나 별 호전이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엉덩이 통증과 다리 땅김이 심해지자 결국 지인의 추천을 받아 A양과 마찬가지로 강남초이스병원 홍대점을 방문하게 됐다.

주치의인 김 원장은 일자허리 및 골반 불균형이 계속돼 디스크 중기로 진행된 것으로 보고 요추 MRI를 촬영했다. 김 원장은 B씨의 상태를 제4~5 및 제5요추~제1천추 중기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했으며 간단하게 요추 신경치료 주사를 실시했다. 치료를 받은 B씨는 병원의 척추 도수운동치료센터에서 요추 도수·감압·운동치료를 일주일에 1~2회씩 3개월간 받았고 지금은 별다른 통증 없이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많아지면서 만성 허리 통증 및 골반 통증, 일자목에 의한 두통이나 목 뻐근함, 만성 경추 통증 및 어깨 통증 등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단과 치료보다는 가격만 비싸고 증상의 일시적인 호전만 주는 꼬리뼈 신경 성형술,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치료술, 추나 요법, 침치료만을 시행한다.

수많은 유명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 그리고 세계인들이 치료받아 이름이 알려진 강남초이스병원은 이런 환자들을 위해 내원 환자의 증상 및 질환에 따라 척추 전문의가 먼저 진료를 실시한다. 초기 및 중기 디스크 질환일 경우에는 아픈 부위에 간단히 신경 주사 치료를 시행하고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환자의 질환·나이·증상에 따라 맞춤 치료를 진행한다.

증상이 심하거나 말기 디스크 질환의 환자는 '히든싱어'로 화제가 된 가수 휘성 및 배우 윤계상씨가 치료받았던 강남초이스병원의 대표적인 디스크 치료인 고주파 디스크 치료를 받는다. 이 치료법은 기존의 고주파 열 치료 또는 수핵 감압술과는 차원이 다른 방법으로 직경이 작은 특수 내시경을 이용해 탈출된 추간판을 제자리로 밀어 넣는 방법이다.

이와 함께 강남초이스병원은 환자 1명을 척추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4명이 전담하는 통합 진단·치료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고 있다.

현재 강남초이스병원은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본원 외에 여의도역, 홍대입구역, 교대역에 목, 허리 및 어깨 통증 치료, 체형 교정(일자목·골반 불균형·휜다리·측만증 등) 전문 치료클리닉 및 척추관절 비수술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문의: 서울대 본원 02)875-2200·홍대점 02)336-2200·여의도점 02)786-2200·교대점 02)525-2900

/황재용기자

"꽃할배처럼 여행 허리 다칠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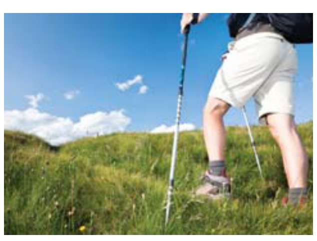
tvN '꽃보다 할배'의 영향으로 중장년층의 해외여행과 배낭여행이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여행은 체력 소모가 크고 허리에 무리가 가는 만큼 척추관절 관리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

◆장시간 비행은 척추에 부담

기차와 버스, 그리고 비행기 여행은 중장년층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좁은 공간에서 움직임 없이 장시간을 같은 자세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척추가 받는 부담은 서 있을 때보다 앉아있을 때 1.5배 더 크며 갑자기 일어날 경우 삐끗하는 느낌과 함께 통증이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여행으로 인한 척추 피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등을 꼿꼿하게 펴고 앉아야 한다. 또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먼저 등을 의자에 바짝 대고 몸을 뒤로 젖힌 채 5초 정도 멈췄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장거리 여행을 할 경우에는 매 시간마다 10분씩 버스나 비행기의 통로를 걸으며 전신의 긴장을 풀어주고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무리하게 걸으면 협착증 악화

만약 척추관협착증을 앓고 있는 여행객이라면 무리하게 걷는 것을 삼가야 한다.

척추관협착증은 신체 노화로 인해 척추관 안이 좁아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허리와 함께 엉덩이, 종아리, 발목 등에서도 통증이 발생한다.

척추관협착증이 있을 경우에는 장시간 걷는 코스나 언덕, 계단이 많은 장소를 피하고 30~40분에 한 번씩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미리 복대를 챙겨 힘들 때 잠시 착용해 허리를 지탱해 주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며 숙소에 돌아와서는 무릎 밑에 베개를 넣어 무릎관절과 허리의 피로를 풀어줘야 한다.

아울러 가방을 최대한 가볍게 하는 것도 허리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무거운 배낭은 어깨를 짓누르고 하중을 아래로 전달해 허리와 무릎까지 영향을 미친다. 자기 체중의 10% 이하의 무게로 배낭을 꾸리고 가방을 한쪽 어깨로만 매지 말아야 한다. 또 될 수 있으면 캐리어를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이상원 연세바른병원 대표원장은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해 여행을 즐겨야 한다. 또 여행 후 허리 통증이 지속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지난해 곰팡이 오염 유통식품은 1건

지난해 우리 국민이 많이 소비한 가공식품 중 곰팡이 독소에 오염된 제품은 단 1개뿐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013년 농산물 및 간장·고추장 등 가공식품 127개 품목 1만1744건을 대상으로 곰팡이 독소 오염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 1건을 제외한 1만1743건이 안전한 상태라고 밝혔다.

조사는 곰팡이 독소 8종에 대한 식품의 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식약처는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곰팡이 독소 기준이 설정된 8549건 중 '기장' 1건에서만 아플라톡신이 초과(74.9ppb, 기준 15.0ppb) 검출됐다.

또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3195건은 유럽연합(EU)과 국내 유사 제품 기준과 비교했으며 모든 제품이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이들 식품 섭취로 인한 곰팡이 독소의 인체 노출량은 인체 노출 허용량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 신체 위해 영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곰팡이 독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염 수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황재용기자

수지의 메시지로 착한 마음 전하세요~

광동제약(대표 최성원)이 응원 메시지로 가족과 친구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착한 마음 전하기' 이벤트를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

'비타500' 이벤트 페이지에서 제품 모델인 미쓰에이 수지의 응원 메시지 중 하나를 선택해 보내고 싶은 사람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면 메시지와 함께 비타500이 선물로 전달된다.

또 광동제약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이벤트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미니2, 네스카페 돌체구스토, 외식 상품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제품의 라벨에 적혀있는 6종의 착한 메시지를 모은 인증샷으로 응모하는 '착한 라벨 컬렉션'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황재용기자

아이스크림 케이크로 만나는 영화캐릭터들

배스킨라빈스, 한정판 겨울왕국·스파이더맨 케이크 출시

배스킨라빈스(www.baskinrobbins.co.kr)는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귀여운 눈사람 '올라프'와 영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2' 캐릭터를 활용한 한정판 캐릭터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케이크는 '겨울왕국 올라프', '지구를 지켜라, 스파이더맨' '마이 히어로, 스파이더맨' '워너 비, 스파이더맨' 등 총 4종이며 한정 수량으로 판매된다.

케이크 '겨울왕국 올라프'는 지난겨울 인기를 끈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을 모티브로 해 만든 아이스크림 케이크로 눈을 배경으로 한 영화의 스토리와 배스킨라빈스의 아이스크림 이미지가 잘 어울리는 제품이다.

귀여운 눈사람 올라프를 아이스크림 케이크로 구현한 재미를 느낄 수 있고 특히 눈을 굴려 동그랗게 쌓아 올린 올라프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영화 속 캐릭터를 아이스크림으로 만나볼 수 있다. 초콜릿·체리쥬빌레·아몬드봉봉 등 세 가지 맛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영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의 개봉을 기념해 스파이더맨 아이스크림 케이크 3종도 함께 출시했다.

이 제품은 케이크 상단에 귀여운 미니 스파이더맨이 올려져 있어 아이들에게 더욱 인기가 있을 것으로 업체 측은 전망하고 있다.

'지구를 지켜라, 스파이더맨'은 아몬드봉봉으로 구성된 레이어 케이크로 스파이더맨 컬러인 레드&블루가 눈길을 잡는 제품이다.

'마이 히어로, 스파이더맨'은 민트향초콜릿칩·블루베리치즈케이크·체리쥬빌레·아몬드봉봉·엄마는외계인·슈팅스타 등 6가지 맛으로 이뤄진 조각 아이스크림 케이크다.

'워너 비, 스파이더맨'은 워터컷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그린티·체리쥬빌레·아몬드봉봉·엄마는외계인 등 8가지 맛이 육각형 모양의 아이스크림 조각들로 구성돼 있어 다양한 맛과 함께 보는 재미까지 더했다.

배스킨라빈스 관계자는 "한정판으로 출시되는 이번 캐릭터 아이스크림 케이크로 달콤한 아이스크림과 함께 영화 속 재미와 감동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학철기자 kimc0604@



배스킨라빈스가 한정판으로 선보인 인기 영화 캐릭터 아이스크림 케이크 (사진 왼쪽 위부터 아래) '워너 비, 스파이더맨' '지구를 지켜라, 스파이더맨' '마이 히어로, 스파이더맨'.

유통기업 CSV 사회공헌활동 활발

국내 유통업계가 다양한 공유가치창출(CSV)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CJ프레시웨이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설빙'과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3월부터 빙수용 딸기를 납품해 호평을 받았다.

CJ프레시웨이는 2011년부터 경남 산청군 딸기 재배 농가들과 함께 CJ푸드빌의 '뚜레쥬르' 케이크에 들어가는 장식용 딸기를 공급해왔다. 새로운 전국 판매망이 생기면서 재배 기술이 뛰어나고 친환경 딸기를 생산하려는 의지가 강한 26개 농가는 힘을 합쳐 그해 5월 농업회사법인 '조이팜'을 설립했다. 현재 이 업체는 '조이팜'에서 생산되는 딸기의 60% 정도인 연간 500여t, 40억원어치를 CJ푸드빌과 설빙에 납품하고 있다.

할리스커피는 지난 8일 국내 최초로 커피 전 메뉴에 깨끗한 환경과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친환경 농법을 실천하는 농장에서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는 노동자의 손으로 키워낸 농작물에만 열대우림연맹 인증 원두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정영일기자

미스터디저트, 창업 대안으로 급부상

이탈리아 100년 전통에 빛나는 구르디젤라토 '미스터디저트'가 한국 디저트 시장에 새로운 창업 대안으로 급부상하는 중이다.

신선한 재료로 당일 생산, 당일 판매가 원칙인 이 브랜드는 정통 젤라또·빙수·타르트·도넛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토핑을 고를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 업체는 전국 약 300개의 다양한 가맹점을 구축한 노하우를 발판으로 사업 초보자용 매뉴얼 및 교육을 제공하고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 없는 창업을 도울 계획이다.



미스터디저트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와 상담은 10일 코엑스 '2014 프랜차이즈 서울'에서 구할 수 있다. 창업 문의: 1577-1289 /김학철기자

캠핑장 90% '미등록 시설' 안전사고 급증

9월부터 관광업 분류 정부, 법제화 추진해

최근 국내에서 캠핑 붐이 일면서 전국에 야영장들이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단 10% 정도만 정식 등록된 곳이라는 충격적인 정부의 발표가 나왔다. 일정 등록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캠핑장이 난립하면서 관련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전국에는 1866곳의 캠핑장이 설치됐지만 등록된 캠핑장은 230곳에 불과했다. 전국 캠핑장 가운데 12.3%만 정식 등록 시설이라는 것이다.

230여 곳의 정식 등록 캠핑장은 국립공원 야영장 92개소, 자동차 야영장 50개소, 청소년 야영장 45개소, 자연휴양림 야영장 43개소 등이다.



결국 미등록 야영장이 87.6%에 달해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안전사고 위험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야영장 안전사고는 2009년 429건에서 2010년 282건, 2011년에는 3004건으로 급증했다.

이들 미등록 야영장은 이용객이 현장에 도착해 확인하기 전까지는 품질을 미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야영장을 관광업의 하나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자연공원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으로 나눠져 관리된 야영장 등록 기준을 관광진흥법으로 통합해 '야영장업'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지난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정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야영장업은 일반 야영장업과 자동차 야영장업으로 구분되며 ▲입지와 야영지 규모 ▲편의시설 ▲진입로 등의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정식 야영장으로 등록이 가능해진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농협홍삼, 어린이 홍삼음료 '키즈엔' 선봬

농협홍삼(대표 안종일)은 아이들을 위한 홍삼음료 '착한홍삼 키즈엔'을 10일 전국 한삼인 가맹점과 농협 하나로마트를 통해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100% 국산 원료를 사용하고 합성감미료·합성착향료·합성보존료 등 합성첨가물을 넣지 않았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들에게 권할 수 있는 어린이 음료'라는 콘셉트로 출시한 이 제품의 주원료는 국내에서 키운 6년근 홍삼과 국내산 과일이다.

제품은 아이들이 마시기 편한 스파우트캡 파우치로 돼 있다. 가격은



포도·사과·배 맛 100㎖ 10포에 각 1만3000원이며, 포도와 배 맛 100㎖ 20포는 각각 2만6000원이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오리진스와 함께 '지구의 달' 즐기세요

'이로움 백 증정 이벤트' '공병 수거 이벤트' 실시



오리진스가 4월 지구의 달을 맞이해 지구 보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이로움 백 증정 이벤트'와 '공병 수거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로움 백 이벤트는 오는 13일까지 신세계백화점에서 단독으로 진행되며 모든 구매 고객에게 2014년 지구의 달 기념으로 한정 제작된 에코백을 증정한다.

오리진스는 '두 굿(DO GOOD)'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지구를 위한 올바른 행동을 촉구하며 전 세계적으로 매년 지구의 달을 기념해 에코백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다.

'두 굿'을 한글로 표현한 단어 '이로움'이 적혀있어 이로움 백이라고 불리는 이번 에코백에는 한글 외에도 전 세계 8가지 다른 언어가 디자인돼 오리진스 전사가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 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캠페인 일환으로 에코백이 증정될 때마다 나무를 심는 '플랜트 어 트리' 캠페인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또 11일부터 13일까지 단 3일 동안에는 브랜드와 관계없이 다 쓴 화장품 용기를 들고 가까운 오리진스 전국 매장(온라인 제외)을 방문해 5만원 이상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지구의 달 스페셜 패키지로 제작된 '플랜트스크립션 아이 트리트먼트 정품'(15㎖·6만6000원)을 무료로 증정한다.

1인 1회에 한해 한정 수량으로 진행되며 중복 증정은 불가하다. 이 이벤트는 재활용되기 쉽지 않은 화장품 공병을 오리진스가 대신 수거해 재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작은 실천부터 실행하자는 오리진스의 브랜드 철학이 담겨있다.

한편 고기능 자연주의 코스메틱 브랜드 오리진스는 피부 개선 효과를 주는 식물 성분과 100% 자연 에센셜 오일만을 사용한다.

청정 원료를 보존하기 위해 오리진스는 환경 친화적인 활동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피부와 환경 모두에 해로운 화학 성분과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재생 가능한 친환경 소재로 패키지와 쇼핑백을 제작한다. 또 환경오염을 더욱 줄이기 위해 풍력 에너지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정혜인기자

스몰웨딩족 실용혼수 대세

본격적인 결혼 시즌을 앞두고 '스몰웨딩족'이 새로운 블루슈머로 떠올랐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실속 있는 소비를 원하는 젊은 예비 부부들이 늘어나면서 결혼 비용의 군살을 빼려는 트렌드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

스몰웨딩족은 주방용품 구매에서부터 고가 브랜드 제품보다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이 보장되면서도 감각적인 디자인을 추구한다. 최근에는 좋은 품질로 요리가 서투른 이들도 손쉽게 음식을 만들게 도와주는 '홈 셰프' 주방용품이 인기다.

또 전셋값 상승으로 신혼집 공간이 줄어들면서 효율성과 공간 활용 효과가 큰 '멀티 가전'이 혼수 가전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멀티 가전이란 두 가지 기능을 하나의 제품에 담은 것으로 제품을 따로 따로 살 필요가 없어 비용 부담도 덜어준다.

좁은 공간에서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미니맥스(Mini-Max)' 가구들도 각광을 받고 있다. 미니맥스 가구는 1·2인 가구를 위한 제품으로 크기는 작아지고 기능은 기존 제품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을 제공한다.

/정혜인기자



바로 잡습니다

본지 4월 10일자 14면에 게재된 '러쉬 제품 사고 콘서트 보러 가자'의 소제목 중 해당 콘서트의 개최일은 5월 10일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러쉬 측이 준비한 '러쉬 냄새나는 콘서트3'는 5월 10일 오후 5시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관람 티켓은 러쉬 전국 49개 매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선착순 증정합니다.

아웃도어, 크로스오버 스타일로 '여심' 공략

아웃도어 업계는 지금 여성 고객의 지갑을 열기 위해 색상과 디자인에 힘 준 크로스오버 스타일의 제품들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컬럼비아의 프라임로즈 패스 재킷은 핑크 컬러가 돋보이는 제품이다.

여성 전용 아웃도어 브랜드 와일드로즈는 후드 탈부착 프론트 사선 절개 집업 재킷을 최근 출시했다. 피버그린이 올봄 출시한 캠핑라인 중 대표 상품인 여성용 투블럭 재킷은 위아래 톤온톤 배색으로 포인트를 준 슬림한 야상 스타일의 제품이다.

노스페이스 화이트라벨의 런디 재킷은 방수·방풍 및 속건 기능이 뛰어난 원단을 사용해 내구성을 강화한 여성용 롱 재킷이다.

이젠벅의 하이브리드 재킷은 20데니아 방풍 소재와 어깨 및 후드 부분에 2.5 레이어 방수 소재를 적용해 봄철 갑작스러운 비바람에 대처할 수 있다. 압축이 가능한 패커블 기능으로 날씨에 따라 보관 및 휴대가 용이하다.

/김학철기자



워런치족 '워킹화 매출 이끈다'

매출 전월대비 2배 증가
올해 1조5000억원 기대

최근 점심 시간을 이용해 걷기 운동을 즐기는 이른바 '워런치족'이 급격히 늘고 있다. 워런치족은 워킹(walking)과 점심(lunch)의 합성어로 점심 시간 짬을 내 걷기 운동을 즐기는 직장인을 말한다.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서는 사원들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 시간 등을 이용해 걷기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가벼운 운동과 예쁜 워킹화에 대한 욕구는 운도녀(운동화를 신은 도시 여자)·레깅족(레깅스에 워킹화를 즐겨 신는 사람들)을 만든 데 이어 워런치족이라는 신조어를 만드는 등 근래 '워킹'은 핫한 단어로 자리매김했다.



이처럼 걷기를 즐기는 직장인들이 많아짐에 따라 워킹화도 날개 돋친 듯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브랜드 휠라(FILA)는 워킹화 에스웨이브(S-Wave)2를 필두로 3월 한 달간 워킹화 매출이 전월과 비교해 약 300%가량 올랐고 이달 1일부터 7일까지의 매출도 전달 동기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고 전했다.

아웃도어 워킹화도 순풍을 맞고 있다. 지난 3월 말에 출시한 아이더 워킹화 라이트 워크라인의 스내퍼는 이달 10일 기준 전체 물량의 25%가 이미 팔려나갔다. 레드페이스의 신제품 콘트라 로드 워킹화의 경우도 지난달 말 기준 일평균 2000족이 판매되며 2만 족의 누적판매량을 기록했다.

G마켓은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9일까지 워킹화 판매량이 전달 대비 150%가량 늘었고, 옥션은 워킹화를 포함한 운동화 판매량이 155% 신장했다고 밝혔다.

워킹화를 다루는 스포츠 및 아웃도어 업계에서는 해마다 20~30% 성장하는 워킹화 시장이 올해는 약 1조5000억원대로 커져 워킹화 전성기를 맞이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꽃중년, 꽃주방에 꽂히다!

봄을 맞아 집 안 인테리어, 특히 주방에 변화를 계획하고 있는 주부들이 늘고 있다. 이전에는 큰 비용과 공사 기간, 공사 업체를 알아보기 번거로워 주방 인테리어에 변화를 주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방 가구 및 가전 업체들이 홈쇼핑에 진출함에 따라 주방 리모델링 정보에 접근하기 용이해졌고 할부 혜택 등을 통해 비용 부담도 줄었다. 또 형형색색의 컬러와 디자인을 강조한 주방용품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그 자체로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주방 후드는 상부장과 함께 빌트인으로 설계돼 있어 변화를 주기 힘든 공간이다. 특히 요리 시 발생하는 기름 때와 같은 오염 물질



로 인해 쉽게 더러워지고 청소도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세련된 디자인의 후드를 렌털해주고 사후 관리까지 제공하는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편하게 놓아버린 파격 멜로



영화 '가시'로 돌아온 장혁

배우 장혁(38)의 별명은 '바른 생활 사나이'다. 그간 출연한 작품에서 주로 강직한 이미지를 보여준 이유에서다. 실제 성격도 진지한 구석이 많아 그런 이미지가 더욱 굳어졌다. 그러나 이번엔 선생님과 여고생의 파격적인 멜로를 그린 '가시'(10일 개봉)로 대중과 만난다.

◆ 학생에게 설렘 느끼는 교사 역

'가시'는 평범한 일상을 살던 남자에게 찾아온 겁 없는 소녀, 그리고 사랑이란 이름의 잔혹한 집착을 그린 서스펜스 멜로물이다. 장혁은 여고생 영은(조보아)에 대한 한 순간의 설렘으로 파멸로 치닫는 체육교사 준기 역을 연기했다.

이전과는 색다른 캐릭터에 도전하면서 장혁은 이미지뿐 아니라 연기하는 방식에서도 변화를 줬다. 평소 공부하듯 분석하며 연기해 모범생 같은 배우로 잘 알려졌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몇 년 전부터 제 연기의 틀을 조금씩 깨기 시작했어요. 장르에 따라 연기를 편하게 놓고 가야 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점들을 배우고 있는 중이랍니다. 상대역인 조보아씨에게도 김태균 감독님이 따로 공부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배인 제가 가르칠 게 없었죠."



'바른생활 사나이' 이번엔 달라
연기는 사랑과 운동 같은 것
작품할 때마다 가족에게 미안

◆ 체조선수 출신 18년차 배우

드라마 '모델'로 데뷔해 '추노' '아이리스2'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올해 데뷔 18년차 배우가 된 장혁은 아직도 연기가 재미있다고 했다.

중·고등학교 시절 기계체조와 마라톤 선수였던 그는 "우연치 않게 운동을 하다가 배우가 됐고, 현장에서 연기를 경험하면서 즐거움이 쌓였다. 지금도 현장에 갈 때마다 배울 게 많고 즐겁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은 밥 먹고 살게 해주는 곳이기도 하니 더욱 좋은 곳"이라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장혁은 연기를 사랑과 운동에 비유했다. "사랑은 관심을 가지면 더욱 깊어지잖아요. 운동도 노력해서 익숙해질수록 더 재미를 느껴요. 연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특히 작품은 할 때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만큼 재미를 더 느끼게 돼요."

톱스타라 많은 시나리오를 받을 텐데도 굳이 들어오는 것만 앉아서 기다리지 않는 편이다. 그는 "회사에 자주 가는 편이다. 나한테 들어온 대본이 아니더라도 찾아 보고 작품에 대한 안목을 넓힌다"고 말했다.

◆ 마흔 코 앞, 두 아이의 아버지

어느덧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 장혁. 연기에 대한 열정은 그대로지만 그를 둘러싼 많은 것들은 변했다. 한 여자의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됐고, 그에 따라 작품을 보는 눈도 달라졌다.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있어요. 작품을 시작하면 집에 잘 들어가지 못하니까요. 어릴 적 아버지가 건설 쪽에서 일해 사우디아라비아에 파견 나가 있었기 때문에 1년에 얼굴을 많이 봐야 한 달이 고작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존경했지만 어린 나로선 아쉬웠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 미안해요."

그는 "데뷔 무렵인 20세 때와 지금은 외모뿐만 아니라 정서도 많이 변했다"면서 "예전엔 남자다운 캐릭터에 끌렸다면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부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캐릭터에 끌렸다. 지금은 특정한 것에 끌린다기보다는 연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다"며 연기에 대한 애정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사진/한제훈(라운드테이블)·디자인/박은지

"빌보드 시상식 올해도 갑니다"

싸이 2년 연속 후보… 케이티 페리 등과 경쟁



싸이(사진)가 세계적인 음악 시상식인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2년 연속 후보로 올랐다.

10일 빌보드 홈페이지에 따르면 싸이는 지난해 발표한 '젠틀맨'으로 '톱 스트리밍 아티스트'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마일리 사이러스·이매진 드래곤스·맥클모어&라이언 루이스·케이티 페리와 경쟁한다.

싸이는 지난해 이 시상식에서 '강남스타일'로 '톱 스트리밍 아티스트' '톱 뉴 아티스트' '톱 스트리밍 송(비디오)' 등 6개 부문 후보에 올라 '톱 스트리밍 송'의 비디오 부문을 수상했다.

빌보드 뮤직 어워드는 그래미 어워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등과 함께 미국의 대표적인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꼽힌다. 앨범, 디지털 싱글 판매, 라디오 방송 횟수, 페이스북·트위터·유튜브에서의 반응 등을 기반으로 점수를 매겨 후보를 선정한다.

다음달 1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릴 올해 시상식에는 '톱 핫 100 아티스트' 후보에 오른 마일리 사이러스·이매진 드래곤스·로드·케이티 페리·저스틴 팀버레이크, '톱 빌보드 200 아티스트' 후보인 비욘세·루크 브라이언·에미넴·원 디렉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아이유 소극장 공연 '딱 한발짝'

가수 아이유(사진)가 리메이크 앨범을 발표하고 소극장 단독 콘서트를 연다.

소속사는 10일 "아이유가 과거의 명곡들을 자신의 음색으로 재해석한 리메이크 앨범을 다음달 발매한다"며 "동시에 소극장 단독 콘서트를 연다"고 전했다. 아이유는 작은 공간에서 좋은 음악을 전달하기 위해 아이돌 가수로서는 이례적인 소극장 단독 콘서트를 결정했다.

아이유의 소극장 단독 콘서트는 감성 어린 자작곡들을 포함한 히트곡 무대로 꾸며질 예정이다. 아이유의 단독 콘서트 '딱 한발짝…그만큼만 더'는 다음달 22일부터 6월 1일까지 서강대 메리홀에서 총 8차례 열린다.

아이유 소속사 로엔트리 측은 "상쾌한 봄바람과 꽃처럼 화사한 목소리가 가득한 공연장에서 노래하는 아이유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형식의 공연도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성운기자 ysw@

동방신기, 본조비 기록 166개월 만에 경신

오리콘 월간 차트 정상

동방신기(사진)가 오리콘 월간차트 정상에 오르며 한류 제왕의 명성을 입증했다.

지난달 5일 일본에서 출시한 앨범 '트리'는 발매 당일 오리콘 앨범 일간차트 1위에 오른 데 이어 주간차트에서도 정상에 등극했고, 9일 발표한 월간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앨범은 발매 첫 주에만 약 22만5000장의 판매고를 올려 전작 '톤'과 '타임'에 이어 세 장의 정규 앨범을 연속으로 첫 주에 20만 장 이상 판매하는 신기록을 세웠다. 해외 그룹 사상 최다 기록을 세운 본조비의 두 작품 연속 20만 장 돌파 기록을 13년10개월 만에 경신했다.

이번 앨범에는 '하이드 & 시크' '섬싱' '스크림' 등 싱글을 포함한 다양한 장르의 총 14곡을 수록해 동방신기의 다채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으며 지난 2일 국내에도 발매됐다.

또 동방신기는 22일 요코하마 공연을 시작으로 도쿄·오사카·나고야·미야기·삿포로·후쿠이·니가타·후쿠오카·히로시마 등 10개 도시에서 29회에 걸쳐 일본 전국투어 콘서트 '동방신기 라이브 투어 2014~트리…'를 개최해 앨범의 열기를 라이브로 이어간다.

한편 '섬싱'과 '수리수리'로 국내에서 활발히 활동한 동방신기는 일본으로 건너가 투어 준비에 한창이다. /유순호기자





알맹 '쓰리데이즈' OST합류

'K팝스타 3' 톱 6까지 오른 실력파 듀오 알맹(사진)이 SBS 수목극 '쓰리데이즈' OST에 참여했다.

알맹의 최린과 이해용이 부른 '잊자'는 9일 정오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 공개됐다. 히트 작곡 듀오 박성호와 오창훈이 만든 '잊자'는 보사노바와 힙합이라는 판이한 두 장르를 자연스럽게 편곡해 어쿠스틱 기타와 반도네온의 연주에 녹여낸 얼반 언플러그드 곡이다.

최린의 공격적이면서도 담백한 래핑과 이해용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한편 '쓰리데이즈' OST는 정은지·신용재·배치기·거미 등이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지민기자 langkim@

'갑동이', '응사' '응급' 흥행 이을까

'응답하라' 시리즈와 '응급남녀'를 탄생시킨 tvN이 이번엔 '갑동이'로 흥행을 이어갈 예정이다.

11일 첫 방송되는 '갑동이'는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됐다. 17년 전 가상 도시 일탄에서 벌어진 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갑동이와 그에 대한 사연을 가진 다섯 명이 얽히고설키며 범인을 쫓고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그린 미스터리 감성 추적극이다.

주인공 하무염(윤상현·오른쪽 사진)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갑동이로 몰리며 죽음에 이르자 진짜 범인을 찾아내기 위해 형사가 된 인물이다. tvN 드라마 간판스타 성동일(왼쪽)은 극중 하무염과 갈등을 빚는 형사과장 양철곤 역을 맡아 코믹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진지한 정극 연기를 펼칠 예정이다.

또 미스터리한 정신과 수련의 오마리아 역의 김민정, 갑동이를 영웅시하는 사이코패스 류태오 역의 이준, 갑동이 사건을 웹툰으로 그리는 작가 마지울 역의 김지원 등이 함께 극을 이끌어나갈 예정이다.

'갑동이'를 통해 공소시효의 문제점을 담론화시키고 싶었다는 권음미 작가는 "캐릭터 이름도 모두 의미가 있다"며 "하무염은 '물들지 마라'는 뜻이고 양철곤은 '양철북'에서 따왔다. 마지울은 거꾸로 하면 '울지마'로 캐릭터를 표현하는 이름"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갑동이'는 지난해 '너의 목소리가 들려'로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에서 연출상을 수상한 조수원 PD와 '로열패밀리' '종합병원2' 등을 통해 탄탄한 필력을 인정받은 권음미 작가가 손을 잡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드라마 팬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지민기자





'막장'에 빠진 MBC 드라마

'엄마의 정원' '왔다 장보리' 식상·자극 소재 눈살





최근 MBC 드라마가 출생의 비밀, 재벌가 형제 등 '막장 코드'로 일주일을 채우고 있다.

일일극 '엄마의 정원'은 '힐링 드라마'라는 연출자의 설명과 달리 동복 자매와 재벌가 형제의 사각관계라는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다.

재벌가의 딸 서윤주(정유미)는 스물일곱 살이 되던 해 자신을 길러준 어머니가 생모가 아니란 사실을 알아채고 친엄마 정순정(고두심)을 찾아나선다. 순정은 과거 윤주의 아버지 서병진(길용우) 사장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서 사장 부모의 반대로 윤주만 출산해 보낸 후 다른 남자를 만나 김수진(엄현경)을 낳는다.

동복 자매 윤주와 수진은 TS그룹 차동수(박근형) 회장의 아들 차성준(고세원)·차기준(최태준)과 엇갈린 사랑을 그린다. 특히 윤주는 자신을 길러준 엄마 유지선(나영희)의 압박에 못 이겨 기준과 맞선을 보지만 기준에겐 숨겨둔 여자친구 수진이 있다. 가난이 지겨운 수진은 재벌가 며느리가 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언니 윤주와 갈등을 빚게 된다.

방송 첫 주 시청률 12.5%(지난 6일, 닐슨코리아 집계 기준)를 기록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린 주말드라마 '왔다! 장보리'는 전통 한복의 맥을 잇는 '비술채'를 중심으로 2대에 걸친 갈등과 사랑을 그리고 있어 '엄마의 정원'보다 한층 더 복잡하다.

'비술채'의 둘째 며느리 김인화(김혜옥)는 친딸 은비(오연서)를 잃어버린 후 연민정(이유리)을 양딸 삼아 기른다. 민정은 어린 시절 가난이 싫어 엄마 도혜옥(황영희)을 떠나 고아 행세를 해 양딸로 들어가는 인물이다. 혜옥은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은 은비를 장보리란 이름으로 기르게 되고 민정과 은비는 각각 엄마가 뒤바뀐 채 성장한다.

엇갈린 운명의 두 여자는 재벌가 이복형제 이재화(김지훈)·이재희(오창석)와 애정선을 형성하며 일과 사랑 모두 경쟁하게 된다.

두 드라마 모두 식상하면서도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어 일각에선 자칫 막장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류시원 "다시 돌아오겠다" 눈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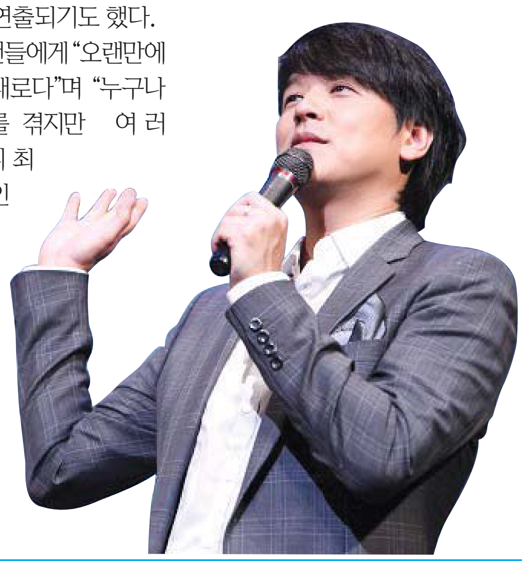
류시원(사진)이 일본 팬 8000명과 일본 데뷔 10년을 기념하는 만남을 가졌다.

이번 팬미팅은 이혼소송 중인 상황에서 마련돼 류시원과 그의 팬에게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류시원 팬미팅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 이틀에 걸쳐 도쿄와 오사카 인근에서 열렸다. 2년 만에 마련된 공식적인 자리인 만큼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이 장외에서 류시원을 기다리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류시원은 팬들에게 "오랜만에 만나는데 그대로다"며 "누구나 어려운 시기를 겪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근 몇 년간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여러분과 함께한 10년의 추억을 돌아볼 수 있어서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꼭 다시 어려움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여러분 앞에 다시 설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하며 눈물을 흘렸고 지켜보던 팬들은 응원의 박수로 격려했다.

이날 팬미팅에서 류시원은 특별히 제작한 영상과 노래를 통해 팬들과 소통했으며 자신의 최근 일상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시간을 마련했다. /전효진기자







'포경' '야동' 남자이야기 예능 새바람

'나는 남자다' '미스터 피터팬' 등 화제

남자의, 남자에 의한 예능이 유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시대 변화에도 주 시청자층이 여성이라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KBS가 올봄 선보인 5개의 파일럿 프로그램 중 '미스터 피터팬'과 '나는 남자다'가 남성을 주제로 한 예능이다.

남자 예능으로 남성은 물론 여성 시청자층까지 끌어오기 위한 전략이며 실제 지난 9일 방송된 '나는 남자다'에서 유재석은 "여성들은 몰래 보세요"라고 말해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했다.

'나는 남자다'는 남자 예능의 결정체다. 방송은 남중·남고·공대 출신 남성 방청객 250명과 5명의 진행자 유재석·노홍철·임원희·장동민·허경환이 함께 남자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 형식이다. 방청객의 솔직하고 직설적인 반응과 주류 방송에서 쉽게 다뤄지지 않았던 '포경' '야동' 등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송 시작 전부터 JTBC '마녀사냥'과 MBC '놀러와-트루먼쇼'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유재석의 수위 적절한 진행과 노홍철·장동민의 도발이 조화를 이뤄 '19금' 토크쇼일 것이란 오해를 종식시켰다.

'나는 남자다'에 앞서 이달 4·5일 방송된 '미스터 피터팬'은 신동엽의 생애 첫 리얼 버라이어티 도전으로 기대를 모았다. 배우 한재석과 정만식이라는 예능에서 보기 힘든 출연자를 포진시킴으로써 '40대 중년 남성의 새로운 놀이문화 찾기'를 목표로 한다.

첫 번째 도전은 'RC카(무선 조종 자동차)'였고 RC카 플래시몹으로 일반인 169명이 동호회에 신규 가입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 공익성을 갖췄다는 호평이다.

현재 주말 저녁을 책임지고 있는 '1박2일'과 '슈퍼맨이 돌아왔다'도 남성 예능이라 할 만하다. '1박2일'은 김주혁·김준호·데프콘 등 6명의 남성 출연진의 여행기를 다루고 있으며 '슈퍼맨…'은 추성훈·이휘재·타블로·장현성, 네 아빠의 양육을 통해 감동과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전효진기자 jeonhj89@

이민호·김우빈 안방 열풍 스크린으로



드라마 성공 이어 영화 차기작 선택… 김수현도 고민

아시아 톱스타로 부상한 이민호(왼쪽 사진)와 김우빈(오른쪽)이 드라마 열풍을 영화 시장으로 옮겨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출연한 드라마 '상속자들'은 중국 동영상 사이트 내 드라마 조회 수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며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다. 중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덕분에 이민호와 김우빈의 차기작 소식에 대한 현지 관심은 여느때보다 높다. 특히 기존 작품에서 드러내지 않았던 다양한 매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영화 '강남블루스'를 차기작으로 선택한 이민호는 꽃미남의 액션 누아르를 준비하고 있다. '강남블루스'는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서울 영동개발지구(강남)를 두고 부동산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에 정치 권력과 사회 어두운 세력이 결탁하는 이야기를 담는다. 이민호는 비운의 운명을 맞는 주인공 역을 맡아 고난도 액션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김우빈은 영화 '기술자들'과 '스물'을 통해 반전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우빈은 두 편의 영화에서 금고털이범과 코믹 연기를 선보이며 연기 스펙트럼을 넓힐 전망이다.

'스물'은 '힘내세요 병헌씨'를 연출하며 기대주로 떠오른 이병헌 감독의 작품으로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레는 스무 살 남자 삼총사의 뜨거운 우정을 그렸다. '스물'의 시나리오는 기존의 코미디에서 볼 수 없던 유쾌 공감 스토리와 촌철살인의 대사로 일찌감치 업계에서 주목받아 왔다. 이에 김우빈의 반전 매력을 기대하는 팬들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 김수현은 차기작 선택에 차분한 모습이다. 김수현은 중국 영화 '종횡사해'에 이어 영화 '사도' 출연까지 고사했다. 이에 김수현 소속사 키이스트는 "'사도' 출연 제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출연을 고사했다"며 "드라마를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차기작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류 열풍의 핵으로 떠오른 이민호와 김우빈에 이어 김수현까지 차기작으로 영화를 선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경제권력 vs 정치권력 드라마 전쟁

'골든 크로스' '쓰리데이즈' 이색소재 눈길

안방극장에서 경제·정치 권력이 맞붙었다. KBS2 수목극 '골든크로스'(큰 사진)는 상위 0.001%의 경제 권력의 암투를 다루고 SBS 수목극 '쓰리데이즈'(작은 사진)는 정치와 경제 권력의 대립 속에서 대통령을 지켜야하는 경호관의 이야기를 그린다.

지난 9일 첫 방송된 '골든 크로스'는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상위 0.001% 비밀 클럽 골든 크로스를 배경으로 암투와 음모, 이에 희생된 남자의 복수를 그린다. 1%의 힘에 평범한 99%가 얼마나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지 현세태를 풍자하며 몰입도를 높였다. 또 금융계와 연예계 이면을 그려 분노를 이끌어 내고 있다.

1회 방송은 강도윤(김강우)이 복수를 하게 된 배경을 그렸다. 강주완(이대연)은 한민은행 경영전략 팀장이지만 대출 담보 등으로 고민하는 소시민이다. 어느 날 서류를 조작해주면 승진과 집을 주겠다는 압박을 받게 되고, 양심을 택한 그는 멀쩡한 은행을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매각시키려는 윗선의 음모에 결국 희생된다. 2회 방송에선 여동생까지 권력의 노리개로 전락해 강도윤의 복수가 본격 시작된다.



'쓰리데이즈'에선 대통령 이동휘(손현주)와 재벌 김도진(최원영)의 본격 대립이 진행 중이다.

대통령 비서실장 신규진(윤제문)은 지난 11회(9일)에서 경제 권력 김도진에 의해 죄후를 맞았다. 그는 피습당한 상황에서도 기밀문서 98을 특검팀에 전달했다. 이로써 김도진의 대통령 압박 카드였던 양진리 사건의 전말이 이동휘의 손에 들어오게 되면서 김도진은 위기에 처했다.

또 그는 이동휘에게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수 많은 사람을 죽일지 지켜보라"고 선전포고해 대통령과 국민을 지켜야하는 경호관 한태경(박유천)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그러나 '쓰리데이즈'만의 재미는 정치와 경제 권력 중 어느 한 쪽에 설 수 없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인물들이 각자의 가치관과 정의감 때문에 비극적인 결말을 알면서도 달려가기 때문이다.

/전효진기자 jeonhj89@

'한공주' 천우희, 세계 영화인들이 주목

신인 여배우 천우희가 세계 영화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주연작인 영화 '한공주'(사진)가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수상하면서 천우희의 연기력에도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한공주'는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친구를 잃고 쫓기듯 전학을 가게 된 공주(천우희)가 새로운 곳에서 아픔을 이겨내고 세상 밖으로 나가려는 이야기를 그렸다.

'한공주'는 5일 폐막한 제28회 프리부르 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 제13회 마라케시 국제영화제, 제43회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제16회 도빌 아시아 영화제에서 각종 상을 휩쓸며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8관왕에 올랐다.

마라케시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을 맡은 세계적인 배우 마리옹 코티아르는 "여주인공(천우희)의 연기가 너무 놀랍고 훌륭하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 천우희가 자신의 팬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제 내가 그녀의 팬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코티아르는 '인셉션' '미드나잇 인 파리' '다크나이트' 등에 출연해 유명한 배우다.

천우희는 얼마 전 개봉한 영화 '우아한 거짓말'에도 출연한 바 있다. 17일 개봉하는 '한공주'로 다시 관객과 만난다. /탁진현기자 tak0427@

보아 할리우드 데뷔작 54개국 先판매

월드스타 보아(사진)의 할리우드 데뷔작 '메이크 유어 무브'가 전 세계 54개국에 선판매되는 성과를 기록했다.

CJ E&M 영화사업부문은 "'메이크 유어 무브'는 2011년부터 베를린 마켓과 칸 영화제 등을 통해 프랑스·독일·호주·체코·동아시아·유럽 등 전 세계 거점 54개 국가에 판매됐다. 세일즈 성과 또한 630만 달러를 상회한다"고 9일 밝혔다.

'메이크 유어 무브'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남녀 도니(데릭 허프)와 아야(보아)가 춤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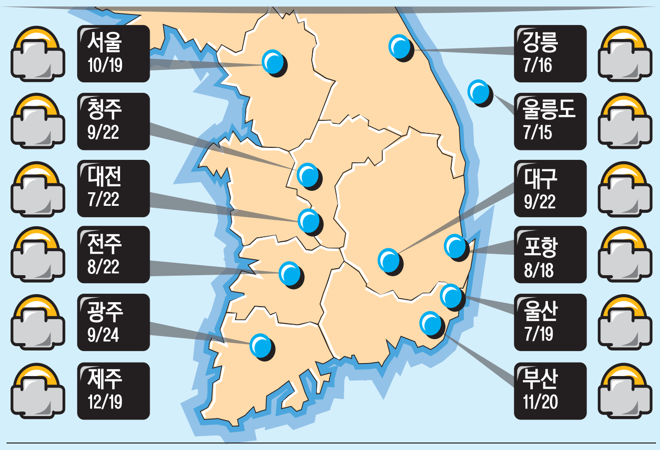
'주만지' '런어웨이 브라이드' 등 다수의 히트 영화를 만든 미국 제작사 로버트 코트, CJ E&M, SM엔터테인먼트가 공동 제작한 글로벌 프로젝트로 북미 배급사 하이탑을 통해 18일 미국 전역에 개봉된다.

한편 '메이크 유어 무브'는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벨기에·네덜란드 등 유럽 지역을 시작으로 홍콩·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까지 총 14개 국가에서 개봉된 바 있다. 국내에는 17일 개봉한다. /탁진현기자

날씨

4/11 金 일출시각 06:04 월몰시각 19:03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숲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우리의 건강과 여유를 찾기 위해 가까운 공원이나 숲을 찾아 걷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가능 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127년 만에 사라지는 백열구



권기봉의 **도시산책** <76>

경복궁 뒤쪽 깊숙한 곳에 '향원지'라는 연못이 하나 있다. 한가운데에는 '향원정'이라는 멋드러진 육각 정자도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그곳이 왕가의 휴식처이기만 했던 건 아니다. 지난 1887년 이 땅 최초의 발전기를 설치했던 곳이자, 그 전기로 백열구를 밝혀 역시 이 땅 최초의 전깃불을 켠 곳이기도 하다. 에디슨이 백열구를 발명한 지 8년 만의 일로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도입 시기가 빨랐다.

다만 당시의 발전 기술이라는 것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었다. 발전기가 돌아갈 때 나는 열을 향원지 물로 식혀줘야만 했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는 어찌나 큰지 마치 천둥이 치는 듯했다고 한다.

그런 와중에 전깃불은 재미난 별명을 얻기도 했다. '찔 증'자에 '물고기 어'자를 쓰는 '증어(蒸魚)'가 그것이다. 향원지 물을 발전기 냉각수로 쓰다 보니 자연히 수온이 올라갔고 결국 향원지에 살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 데서 그런 이름이 붙은 것이다.

또 발전기가 종종 꺼지고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는 통에 '건달불'이라고도 불렸고, 향원지 물로 불을 켠다고 해서 '물불', 너무 묘하고 괴이한 불이라고 해서 '묘화(妙火)'나 '괴화(怪火)'라고도 불렸다고 한다. 그렇게 다양한 명칭이 존재했다는 건 당시 사람들이 전깃불을 그만큼 신기하게 생각했다는 방증일 텐데, 오늘부터 만으로 꼭 114년 전인 지난 1900년 4월 10일부터는 서울 종로에서도 첫 민간용 백열구가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마치 플로피디스크나 CD가 사라져가듯 백열구를 보기 힘들어질 것 같다. 올 초부터 국내에서는 백열구를 생산하지도 또 수입하지도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그 대신 에너지 효율이 좋은 LED 전구 등을 보급해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한반도에 백열구가 들어온 지 127년 만에 일어나는 변화….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야 없지만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를 극빈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는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싶다. /'다시, 서울을 걷다' 저자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7						1		8
				6	1			
5						6	9	
	5		7	3				
	4	9	6		8	3	7	
				4	2		6	
	6	4						1
			2	9				
8		3						6

		1			3	7		
5	2		9	6				4
		3					2	
		9	3					
	1		6		4		5	
					2	9		
	7					2		
1				5	6		8	7
		2	8			6		

스도쿠 정답

7	9	6	3	2	5	1	4	8
4	8	2	9	6	1	5	3	7
5	3	1	4	8	7	6	9	2
6	5	8	7	3	9	2	1	4
2	4	9	6	1	8	3	7	5
3	1	7	5	4	2	8	6	9
9	6	4	8	5	3	7	2	1
1	7	5	2	9	6	4	8	3
8	2	3	1	7	4	9	5	6

9	4	1	5	2	3	7	6	8
5	2	8	9	6	7	1	3	4
7	6	3	1	4	8	5	2	9
6	8	9	3	1	5	4	7	2
2	1	7	6	9	4	8	5	3
4	3	5	7	8	2	9	1	6
8	7	6	4	3	1	2	9	5
1	9	4	2	5	6	3	8	7
3	5	2	8	7	9	6	4	1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리미티드' (마이클 리오스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한식집 인수 영업 잘될까요 운영하다가 2년 후 팔도록

복바치 여자 54년 4월 22일 양력 저녁 먹고 나서

Q 저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직업의 선택과 건강입니다. 지인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 그분이 하던 한식집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업종과 사업운이 궁금하며 제가 건강이 여의치 못한 편인데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요. 몸이 건강해야 사업하거나 음식점을 할 텐데 걱정입니다.

A 천주(天廚:부엌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행운이 따릅니다. 사주 운세가 식상생재(食傷生財)하여 식록이 풍부하고 별 걱정 없이 부자로 좋은 집에서 잘 사는 유형입니다. 지난날 남편궁에 애로가 발생하여 자신이 사업가로 요식업이나 육영 사업 등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으로 치부했다고 봅니다. 재물의 뿌리가 강하므로 음식 솜씨가 좋으나 2014년 이후는 요식업보다는 인수한 집이 2016년 지나 가격이 상승되어 재물의 차액을 가져다주는 인연이 펼쳐집니다. 추산과 서산(秋山과 西山)으로 쓸쓸한 기운이 감돌게 되니 건강상으로는 2018년 이후 요통이나 담석, 갑상선암으로 고생을 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좋은 땅 나왔다고 사라는데 삼년후 가격상승 기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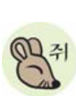
배두산산 남자 59년 11월 20일 양력 저녁때

Q 요즘 부동산 경기가 별로 안 좋아서 땅을 가진 사람들이 '억대 거지'라고 하는데 우연히 친구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좋은 땅이 나왔다고 절 보고 사놓으면 나중에 대박이 날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뜻대로 그렇게 될 는지 염려됩니다. 모든 걸 재기만 하다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서 여쭙습니다.

A 인수격(印綬格)에 관인상생(官印相生)하니 2014년 인수로 칭하는 부동산이나 문서 계약과도 인연이 있습니다. '정오의 태양'이니 이는 자아가 강하고 독존적인 성향을 나타내며 염상지상(炎上之象)으로 대단히 권위적이고 개방적인 스타일로 독선이 지나치면 평생 적을 만들기 쉬우므로 수신, 수양에 힘써야 합니다. 병화(丙火) 일간이 해수(亥水) 천을귀인을 두고 있으므로 운도 있습니다만 음력 4월까지 문서를 좀 더 체크해보십시오. 음력 3월에는 양인(羊刃:양의 뿔과 같이 날카로움)에 구설이 따르니 음주를 주의하고 6월에는 이성에 유의하십시오. 2014년에 사는 땅은 대박까지는 볼 수 없겠으나 2017년 지나 부가가치가 상승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4월 11일 (음 3월 12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돈보다 건강이 우선이다. **60년생** 인정에 얽매이지 말고 단호할 것. **72년생** 명분을 중시하면 진전 못 한다. **84년생** 내일의 태양은 내일 뜨니 편안하게 생각하라.



49년생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마라. **61년생** 공들인 일은 효과가 나타난다. **73년생** 남에게 감정 상하게 하는 말은 자제하라. **85년생** 급한 일일수록 상황 판단이 중요하다.



50년생 평정심 잃으면 낭패 본다. **62년생** 인맥 관리에도 신경 써라. **74년생** 혹 떼려다 혹을 붙이는 꼴이다. **86년생** 연인의 달콤한 문자에 오~ 해피~.



51년생 손재수 따르니 재물에 신경 써라. **63년생** 속 태워온 일은 판가름 난다. **75년생** 현실성 없는 꿈은 빨리 접어라. **87년생** 기다리던 소식은 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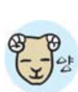
52년생 자녀가 희소식 전한다. **64년생** 지분 싸움이 예상되는 일엔 참여 마라. **76년생** 인생의 비극을 지울 기회가 온다. **88년생** 친구와 의견이 달라도 존중할 것.



53년생 베풀 땐 조건 달지 마라. **65년생** 밤잠 설칠 경사가 생긴다. **77년생** 허황된 생각 버리고 현실을 직시하라. **89년생** 오랫동안 자랑스러워할 경사가 생긴다.



42년생 속 썩이던 집은 매매된다. **54년생** 공적인 자리선 묻는 대로만 답변 마라. **66년생** 급할수록 느긋하게 대처하는 게 유리하다. **78년생** 명품 좋아하다 망신당할 수도.



43년생 전화사기 조심 또 조심~. **55년생** 마음 비우면 다양한 길이 보인다. **67년생** 노회한 선배의 술수를 조심할 것. **79년생** 능력 없는 자의 용기만큼 공허한 것이 없다.



44년생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56년생** 자녀의 좋은 울타리가 되도록 노력할 것. **68년생** 영원한 내 편은 없다. **80년생** 시대 흐름에 깨어있는 청춘이 돼라.



45년생 속내 섣불리 드러내지 마라. **57년생** 웃고 있어도 마음은 쓸쓸하다. **69년생** 군더더기가 많은 조언은 피하라. **81년생** 어려움 이기려면 헝그리 정신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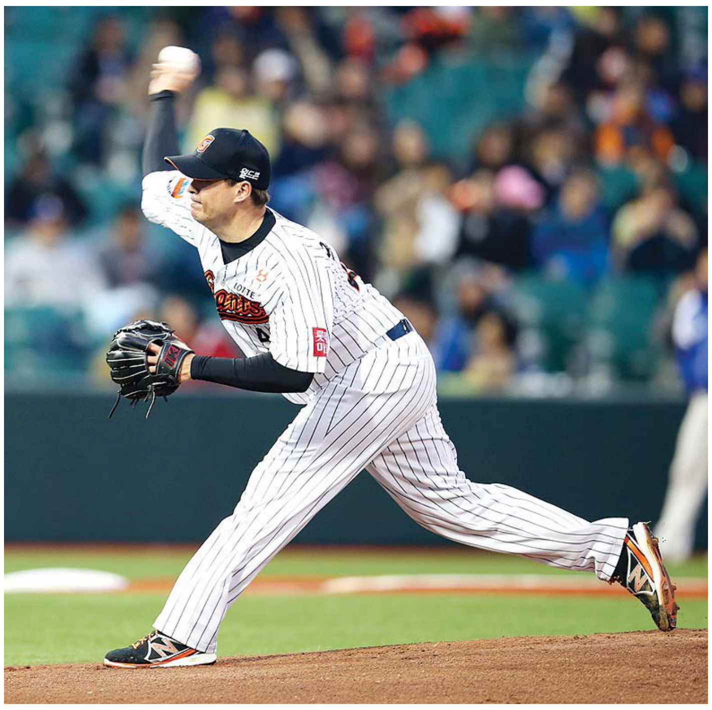
46년생 병상의 환자는 호전된다. **58년생** 방법은 있으니 앞날 너무 걱정하지 마라. **70년생** 무리수 두면 나중에 땅을 친다. **82년생** 일이 잘 풀릴 때 고삐 더 죄라.



47년생 품 안의 자식임을 명심할 것. **59년생** 절망 속에서 희망도 발견한다. **71년생** 철이 확 든 후배 때문에 기분 좋은 하루~. **83년생** 생각대로 해도 무방하다.

초반 마운드 용병 전성시대

선발 26승 중 15승 올려



2014 프로야구 시즌 초반 외국인 선발투수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9일까지 39경기를 치르는 동안 9개 구단 선발은 26승을 거뒀고, 이 중 58%에 해당하는 15승을 외국인 선발이 책임졌다.

올해 1군에서 경기를 치르는 9개 구단은 총 19명의 외국인 투수를 보유했다. KIA 타이거즈 마무리 하이로 어센시오를 제외한 18명이 선발투수다.

부상 중인 삼성 라이온즈의 J. D. 마틴과 막 입국해 등판을 준비 중인 LG 트윈스 에버렛 티포드를 뺀 16명의 외국인 투수가 선발로 한 차례 이상 나섰다. 일반적으로 각 팀은 '5선발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외관상 외국인 선발의 비중은 40%다.

하지만 마틴과 티포드가 아직 선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외국인 선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NC 다이노스는 9일까지 선발진이 3승(1패)을 거뒀는데 외국인 투수 테드 웨버(2승)와 에릭 해커(1승)가 3승을 모두 합작했다. 한화 이글스는 선발승 2승(4패)을 앤드루 앨버스(1승)와 케일럽 클레이(1승)가 거뒀다.

롯데 자이언츠(선발 3승2패)와 두산 베어스(선발 3승4패)는 국내 투수가 단 1승만을 챙기고, 2승을 외국인 선발에게 의지했다. 특히 롯데 선발 크리스 옥스프링(사진)은 포수도 판단하기 어려운 너클볼로 타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외국인 투수 한 명으로 시즌을 시작한 삼성 라이온즈도 선발승 2승 중 1승을 릭 밴덴헐크가 올렸다.

덕분에 외국인 투수 3명을 보유하고 있는 NC가 올해 '다크호스' 팀으로 주목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선발 등판 횟수 상위 11명(공동 3위 9명) 중 9명이 외국인 투수였다. 최다 이닝 순위 상위 10명에 국내 투수는 노경은(두산) 한 명뿐이었다. 이번 시즌에도 외국인 선발투수의 비중이 클 것으로 보인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올해도 역시 '모비스 천하'

문태영 25점 '펄펄'…LG 꺾고 통산 다섯 번째 우승

울산 모비스가 2013-2014 KB국민카드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차지했다.

모비스는 10일 경남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챔피언결정전(7전4승제) 6차전 창원 LG와의 원정 경기에서 79-76으로 이겼다.

경기는 막판까지 접전이 이어졌다. 모비스는 67-67 동점 상황에서 문태영의 자유투 2개와 함지훈의 미들슛으로 71-67로 달아났다.

정규리그 1위 LG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데이본 제퍼슨은 골밑슛으로 추격했고 모비스 문태영이 자유투 2개 가운데 1개를 놓치자 다시 제퍼슨이 2점을 보태 경기 종료 1분41초 전 72-71로 1점차까지 바짝 따라붙었다.

LG가 경기 종료 35초를 남기고 공격권을 잡았으나 양우섭의 3점슛이 모비스 천대현의 블록에 막히면서 역전 희망은 사라졌다.

모비스는 이대성이 종료 18.2초 전에 자유투 2개를 성공하며 4점 차로 달아나 승세를 굳혔다.

기자단 투표 81표 가운데 73표를 얻어 플레이오프 최우수선수에 선정된 문태영은 이 경기에서 25점·11리바운드로 맹활약했고 함지훈도 14점을 보탰다.

모비스의 우승으로 유재학 감독은 플레이오프 통산 40승(2호)을 채우며 프로농구 감독 가운데 최초로 4번 우승한 사령탑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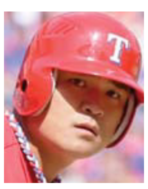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농구 챔프전 6차전 10일

LG	17	17	23	19	**76**
모비스	20	18	20	21	**79**

'몸값'하는 추신수 '먹튀'는 없다

타율 0.355 출루율 0.475로 맹활약



추신수(32·텍사스레인저스·사진)가 시즌 초반부터 맹타를 휘두르며 제대로 몸값을 하고 있다.

추신수는 9일 미국 보스턴 펜웨이 파크에서 열린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경기에 1번 타자 좌익수로 출전해 2타수 1안타 볼넷 2개로 톱 타자로서 제 몫을 완벽히 해냈다. 전날 경기에서도 4차례 출루한 추신수는 출루율을 0.444에서 0.475로 높였다. 오른손과 왼손 투수를 가리지 않는 맹타로 타율도 0.345에서 0.355로 끌어올렸다.

추신수는 상대 선발 제이크 피비를 상대로 첫 타석 초구부터 방망이를 휘둘러 중견수 키를 넘기는 2루타를 뽑아냈다. 3회에는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타석에 나와 풀카운트 끝에 볼넷으로 걸어나가며 자신의 진가를 입증했다.

추신수는 0-1로 뒤진 6회에도 선두 타자로 나와 볼 카운트 1볼 2스트라이크로 몰렸지만 볼 3개를 연달아 골라 1루로 출루했다. 7회에는 일본인 구원투수 다자와 주니치의 포크볼에 막혀 중견수 플라이로 물러났다.

텍사스는 추신수의 활약에도 후속타가 터지지 않아 고전을 펼쳤고, 2-1로 앞선 8회에 데이비드 오티스에게 역전 3점 홈런을 허용하며 2-4로 패했다.

동부 원정을 끝낸 텍사스는 11일부터 홈인 알링턴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10연전을 치른다. /유순호기자 suno@



10일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네마냐 비디치가 바이에른 뮌헨 공격수 마리오 만주키치의 슛을 온몸을 날려 막아내고 있다. /AP 연합뉴스

맨유·바르셀로나 챔스 4강 실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잉글랜드)와 FC 바르셀로나(이하 바르사·스페인)가 2013~2014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에 실패했다.

맨유는 10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디펜딩 챔피언' 바이에른 뮌헨(독일)과의 8강 원정 2차전에서 1-3으로 졌다.

홈 1차전에서 1-1로 비긴 두 팀은 1·2차전 합계 4-2로 뮌헨이 승리하면서 4강 진출권을 가져갔다.

스페인 팀끼리 맞붙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바르사의 경기에서도 홈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0으로 승리했다.

역시 1차전에서 1-1로 승부를 내지 못했던 두 팀은 이날 결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합계 2-1로 FC바르셀로나를 따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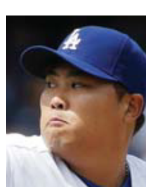
이로써 올해 UEFA 챔피언스리그 4강은 첼시(잉글랜드),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뮌헨으로 압축됐다.

4강 대진은 11일 정해지며 준결승전은 이날 22~23일, 29~30일에 홈 앤드 어웨이로 펼쳐진다.

한편 맨유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은 리그컵과 FA컵 등 모두 중도 탈락한 상황에서 챔피언스리그까지 4강 진출에 실패하면서 부임 첫해부터 경질설에 시달리고 있다.

/양성운기자

류현진 12일 애리조나전 등판 확정



류현진(27·LA 다저스·사진)이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를 상대로 명예회복에 나선다.

다저스 돈 매팅리 감독은 10일 다저스타디움에서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홈경기를 앞두고 12일 열리는 애리조나와의 원정 3연전 첫 경기 선발로 류현진을 확정했다. 초반 6경기에서 세 차례 선발 등판하며 혹사 논란에 올랐던 류현진은 6일간 충분한 휴식을 가진 뒤 마운드에 오른다.

5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2이닝 만에 8실점(6자책)하는 최악의 투구를 했던 류현진은 시즌 첫 승 상대이기도 한 애리조나를 상대로 2승을 노린다. 이를 위해서는 무릎 연골 수술로 장기간 출전할 수 없는 A.J. 엘리스를 대신해 나서는 포수와 얼마나 호흡을 맞추느냐가 관건이다.

지난해 단 한 경기(6⅓이닝 3피안타 2실점)만 손발을 맞춘 팀 페더로위츠나 아직 함께 경기를 치러본 적이 없는 드루 부테라가 출전할 예정이다. 또 타자 친화형 구장인 체이스필드의 장벽을 넘는 것도 숙제다. 류현진은 지난해 세 차례 체이스필드 마운드에서서 1승1패, 평균자책점 4.74로 부진했다.

류현진이 상대할 애리조나 선발 투수는 브랜든 매카시로 올 시즌 두 경기에 등판해 1패, 평균자책점 7.82를 기록 중이다. /유순호기자

프로야구 전적 10일

■ 잠실

S K	000	000	000	0
두산	001	103	00X	5

△ 승=노경은(1승 2패) △ 패=김광현(1승 2패)

■ 목동

KIA	000	000	002	2
넥센	000	010	04X	5

△ 승=밴헤켄(2승 1패) △ 세=손승락(2패 4세이브) △ 패=홀튼(2승 1패) △ 홈런=박병호 3호(8회 1점·넥센)

■ 사직 <연장 10회>

L G	000	000	001	0	1
롯데	000	000	010	3	4

△ 승=최대성(1승) △패= 정찬헌(1패) △ 홈런=조쉬벨 5호(9회1점·LG) 히메네스 1호(10회3점·롯데)

■ 마산

한화	012	000	001	4
N C	100	101	000	3

△ 승=박정진(1승) △ 세=김혁민(1세이브) △ 패=김진성(1승 1패 1세이브) △ 홈런=김회성 3호(2회1점·한화)



2014년 최고의 웰메이드 장르물 드라마!
D-DAY
살 아 있 었 네…
tvN 금토드라마
미스터리 감성 추적극
갑동이
오늘 저녁 8시 40분 tvN 첫방송
tvN 금토드라마 갑동이 를 검색해보세요